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4. 06. (월). 18:00-20:00			장소	****학과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황태자비 납치사건			저자	김진명
	출판사	새움	출판연도	2010. 02. 28.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승자의 기록과 피해자의 기억, 기억의 정치학 (1) : 기억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구성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을미사변(1895)이라는 미청산 역사를 현대 납치 스릴러와 교차시키며 재소환하는 소설이다. 우리는 역사적 비극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복원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 각자 소설을 읽고 독후 소감문을 작성해 온 뒤, 순서대로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소감을 공유한 후, 발제문을 바탕으로 소설의 서사 전략을 분석하고 을미사변이 어떤 방식으로 재소환되는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p> <p>2. 독후 소감 나누기</p> <p>한*민 :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단순한 추리 소설을 넘어, 국가와 권력,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는데, 읽을수록 그 이면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p> <p>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신념과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한 선택과 개인의 윤리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았다.</p> <p>한편으로는 이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씁쓸함도 느껴졌다. 소설을 읽으며 가장 불쾌했던 것은 언론의 작용을 여실히 담아낸 부분이었는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의 이득을 위해 황태자비를 대상으로</p>						

한 기사에서 갖가지 성적은 소구를 사용하였을 때 나는 당장 어제, 오늘 보았던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을 몇 개나 떠올릴 수 있었다. 또한, 현대사란 어떻게 기록되는 것인가, 맞고 틀리는 게 없고 그저 역사는 주장일 뿐이라는 대목도 기억에 남았다. 왜곡되고 곡해되는 지난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역사 기술은 사실적 기술이 아니라 힘, 힘이 있는 자의 목소리가 기록될 뿐이라는 것은 정말 회의감과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 공부와 더불어 역사와 관련된 여러 논제를 동과 사람들과 자유롭게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애국심과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나는 책이었다.

고*연 : 소설을 읽으며 황태자비 납치 사건 이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보고, '현재의 기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의 사실 자체보다 국가의 입장이나 여론을 우선시하며 보도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언론과도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얘기하는 난징대학살은 명칭부터 난징전투라 불러야 해", "난징대학살은 국제사회의 구경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일본을 추락시키려는 음모란 말일세"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국가와 사람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떠올랐다.

또 난징대학살에서 일본군이 사람을 죽인 횟수로 경쟁했다는 장면을 읽으며,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 전공처럼 여겼던 역사와 함께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이 떠올랐다. 인간의 생명을 숫자처럼 여기고 폭력을 정당화했던 모습이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념이 인간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특히 난징대학살의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는 숨겨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가해자이기에 할 수 있는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는 있어도, 무작정 숨기고 잊혀지는 것보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편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감추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덮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과 기억을 지워버리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러나 지금 일본의 역사는 자학과 참회의 역사요. 이 역사를 고쳐야만 우리는 일본다운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소"라는 부분에서는 '역사는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역사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다운 일본'이라는 표현 역시 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역사 왜곡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책임을 흐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느꼈다.

김*원 : 이번 활동의 주제를 생각하며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든 물음은 단순했다. 이 소설은 역사를 복원하는가, 아니면 소비하는가.

을미사변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다. 일본의 공식 사과도, 교과서 수정도, 제도적 책임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소설은 진실이 상징적으로 공개되는 결말로 마무리되고 독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책을 덮을 것이다.

독자들은 을미사변의 비극 앞에 강렬한 감정적 연대를 경험한다.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분노와 공감은 일종의 집합 열광이다. 그러나 집합 열광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소설을 덮는 순간, 그 감정은 빠르게 휘발된다. 문제는 그 감정이 식은 자리에 실질적인 청산을 향한 실천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을미사변의 사건적 비극성만 강조되는 모습도 편하게 읽히지 않았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을미사변을 묘사하면서도 소설의 서술은 그녀라는 인물보다 사건의 잔혹성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의 시점을 빌렸으나 실제로 복원된 것은 피해자 자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건의 비극성인 셈이다. 이는 황후를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배치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작동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사적 복원이라고 하기엔, 황후는 여전히 서사적 도구로 남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설에 과도한 역사적·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해결된 역사를 소재로 삼은 이상, 누구의 시선으로 무엇을 복원했는지는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이 소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다루는 대중 서사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이자 딜레마라는 생각도 들었다. 역사는 소설처럼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책을 덮은 이후 독자의 태도일 것이다. 앞으로도 감정이 휘발된 자리에 행동을 채우려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진 : 그동안 을미사변에 대해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사실만 전달하는 교과서와 달리,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역사를 딱딱하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소설의 역할인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이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줬다.

하지만 소설을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지점들도 있었다. 특히 황태자비가 납치의 이유를 알기도 전부터 납치범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대목은 마치 '리마증후군'처럼 느껴져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납치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범죄라는 수단도 괜찮은 걸까? 소설 속에서 황태자비가 다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복잡하다. 물론 이 문제는 정답이 딱 떨어지거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더 깊게 생각해 볼 숙제로 남았다.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건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참 씁쓸하게 다가왔다. 제도적으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정작 황태자비라는 한 개인이 이 문제를 알게 되며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감정적 호소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국가적 해결이 부재한 현실 때문에 더욱 개인의 감정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이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책을 읽는 내내 기분이 복잡했다.

소설 속 언론의 모습은 요즘과 너무 닮아있어 인상적이었다. 사실 확인보다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고 보도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경각심이 들었다. 이런 언론의 모습은 결국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재 :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읽은 뒤 내가 느낀 점은 역사가 언제나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왜곡된 서사가 공식 역사로 자리 잡는 잘못된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소설이다. 소설을 읽은 뒤 나는 국가 권력이 역사를 통제하는 방법과 문학이 그에 맞서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 속 설정은 역사 왜곡이 단순한 실수나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은폐 행위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문학은 공식적인 국가 서사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억압된 기억을 되살려 지배적 역사 서술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대항한다. 소설은 공식 역사가 침묵하는 지점에서 진실을 허구의 서사 안에 소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문학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거나 검열되는 이야기를 상상력을 통해 펼쳐놓음으로써 억압된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독자의 의식 속에 심는다. 소설은 허구다, 허구이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금기를 건드릴 수 있다. 국가 권력이 공식 기억을 독점하려 할 때 문학은 그 틈새에서 억눌린 목소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문학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지니게 되는 이유이다.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읽으며 나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가 공인한 역사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마주하는 태도

임을 깨달았다. 문학은 그 귀 기울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3. 발제문 의견 공유

① 논제 1. 대중 서사는 집합 기억 형성의 정당한 경로인가?

- 소설은 현대(납치 사건)와 과거(1895년 을미사변)를 반복적으로 교차 서술한다. 교과서와 학술서가 아닌 베스트셀러 소설이 을미사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때, 그 기억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픽션 장르가 집단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는가.

한*민 :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소설이 혼란과 난해함을 준다기보다 역사를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알고 싶도록 만들어 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 편의 소설을 몰입하여 읽었을 때, 당장에 나만 하더라도 을미사변을 건조한 교과서 텍스트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비약적으로 역사를 곡해하고 한 측면에 기대 편협한 서술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황태자비 납치사건』 같은 책이 사회적으로는 끊어진 역사와 현대를 본질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고*연 : 최근 작품인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 단종과 한명회의 이미지가 기존에 작품에서 다뤘던 역사 인식과 다르게 재구성된다. 단종은 무력한 어린 왕이 아니라 저항 의지를 지닌 인물로, 한명회는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사례는 대중 서사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인식을 얼마든지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설이나 영화가 집합 기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기억은 작품의 서사적 의도나 흥행 정도에 따라 쉽게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픽션 장르를 집합 기억의 주요 매개로 삼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대중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허구가 사실처럼 기능하는 기억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 대중 서사는 집합 기억의 형성 경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당성은 조건부로만 인정될 수 있다. 기억은 사회적 틀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므로, 교과서든 소설이든 모두 특정 집단의 필요와 언어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중 소설이 을미사변의 기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 가능성과 권력 비대칭이다. 학술 서술은 사료 검증과 상호 비판이 회로를 거치지만, 베스트셀러 소설은 서사적 설득력이 사실성의 신뢰 기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독자는 납치 스틸러라는 장르적 쾌감 속에서 역사적 허구와 실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소설이 특정 방식으로 역사를 재현할 때, 독자는 그 재현 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면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강조되고 어떤 목소리가 지워지는지는 비가시화된다.

따라서 대중 서사가 집합 기억 형성의 경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실제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수용자의 실천이 함께 있어야만 그 기억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진 :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는 그저 정보 전달만 하는 교과서보다 사람들에게 감정적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찾아보거나 공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채 : 소설과 같은 픽션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뒤섞는다. 픽션에 기반한 집단 기억은 과거를 현재 집단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 복원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깊게 반영된 재구성일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독자들은 픽션 속 서사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허구인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발생한다. 독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집단 기억은 단순히 개인의 오해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기억이 되며 그 순간 사회적 사실로서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중 서사는 집합 기억 형성의 경로로서 파급력은 크지만, 그 신뢰성의 한계로 인해 정당한 경로로 보기 어렵다.

② 논제 2. 제도가 기억을 방치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 납치범이라는 극단적 인물이 등장해야만 역사적 진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소설의 서사 구조는, 공식 제도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고발이다. 국가·제도·공동체 중 누가 그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민 : 나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움직이고, 숨기고, 재구성하기에 가장 유리하며 강압적인 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인가? 나는 단언컨대 국가라고 생각한다. 국가 간 이득과 권력 구조에 의해 목살되는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많으며 그를 숨기기 위해 국가는 또 얼마나 커다란 사회 구조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고*연 : 기억 보존의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 속에서 일본 정부가 을미사변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처럼 국가 권력이 기억의 공개를 막을 경우, 개인이나 공동체의 노력은 쉽게 좌절될 수 있다. 이는 기억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로 만든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역사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방기하거나 왜곡할 경우, 사회 전체의 집합 기억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시민사회와 공동체도 기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도적 차원의 승인과 보존 없이는 그 기억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도가 기억을 방치하거나 은폐할 때, 그 책임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 노라의 기억의 터 개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살아있는 기억의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사회는 기념물이나 문서와 같은 다른 장소로 기억을 고착시키려 한다. 역설적으로 기억의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기억이 이미 살아있지 않다는 신호인 것이다. 을미사변이 교과서에서 두 줄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이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 실패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국가는 공식 역사 서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어떤 기억이 공식적 사실로 제도화되는가는 권력의 작동 결과로 볼 수 있다. 을미사변에서 일본의 개입을 삭제하고 조선 내부 정변으로 공식화한 것은 국가 간 외교 권력의 작동이었다.

그러나 책임이 국가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시민사회와 학술 공론장도 제도 외부에서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행위자다. 소설의 납치범이 혼자 역사적 진실을 체현해야 했다는 서사는, 국가도 공동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무게가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판적 알레고리로도 볼 수 있다. 기억의 방치는 구조적 실패이지만, 그 구조 안에서 각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총위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진 :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책에서의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개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해야만 뒷말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학교나 지역사회 같은 제도나 공동체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이 없다면, 그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채 : 납치범이 극단적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공식적인 뉴스와 같은 채널에서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묻어버렸기 때문에 있다. 국가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납치라는 극단적 선택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납치라는 결과의 원인은 국가의 제도적 실패에 존재한다. 국가는 역사와 관련한 기억이 살아남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는 일상 속에서 역사의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국가와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③ 논제 3. 피해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행위는 언제 또 다른 폭력이 되는가?

- 소설이 명성황후를 희생된 국모로 재현할 때, 그 복원은 향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민족주의 서사의 필요를 반영한다. 피해자를 특정 프레임 안에 위치 짓는 복원이 상징적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한*민 : 피해자의 측면에 선다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표현 하나만 달라져도 듣는 이로 하여금 확연히 다른 감상을 주기도 하지 않는가? 단순히 피해자가 되어본다는 생각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단편적인 사건만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앞뒤로 커다란 맥락과 사건의 깊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공부하며, 연구한 뒤에야 피해자의 기억을 대신 입에 올릴 자격이 갖춰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의도와 다른 피해자의 틀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연 : 피해자를 단일한 서사로 고정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인정하고 재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며, 서사가 특정 이념이나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할 때, 복원은 폭력이 아닌 기억의 확장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명성황후를 희생된 국모,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재현할 때 독자는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이 같은 재현 방식이 민족주의 서사의 아비투스로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원이 또 다른 폭력이 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피해자 자신의 내면과 욕망, 목소리가 아닌 복원하는 자의 필요가 복원을 주도할 때다. 명성황후 개인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는 소설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민족 서사의 기표로 기능할 뿐이다. 또 하나는 복원된 기억이 특정 정치적 목적의 강화를 위해 동원될 때일 것이다.

복원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를 단일한 상징으로 고정하지 않고 그 복수성과 모순, 내면의 다층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복원하는 자 스스로가 어떤 시성과 언어로 복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내밀하게 성찰하는 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진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해자의 서사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왜곡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인 흥행이나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특정 틀에 억지로 맞춰 가공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는 역사적 왜곡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정*채 :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소설을 통해 피해자를 복원한다고 말하지만, 본질은 피해자를 특정 프레임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명성황후를 희생된 국모로 그리는 재현 방식에 어떠한 위화감도 느끼지 못한다. 이러

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거가 된다.

복원이 상징적 폭력으로서 작용하지 않으려면, 복원하는 자의 시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원이 복원하는 자의 필요를 위한 것이 되는 순간 또 다른 형태의 전유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원이란 민족의 상징이 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내면의 목소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복원은 폭력이 아닌 진정한 기억의 회복이 될 수 있다.

4. 사회학적 분석

모리스 알박스 - 집단기억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적용해 소설의 교차서술이 독자로 하여금 을미사변을 현재의 문제로 내면화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했다. 교과서가 한두 줄로 서술하는 사건이 현재 납치 서사와 연결되는 순간, 독자는 그 사건을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이 집단 기억이 역사 청산 요구나 반일 감정 같은 현재적 필요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라면, 그 기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소설이 역사를 곡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끊어진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고 보는 의견과 대중 서사는 현재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반영한 재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맞섰다.

피에르 노라 - 기억의 터

노라의 기억의 터 개념을 납치범이라는 인물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문은 납치범을 제도가 만들어내지 못한 기억의 장소를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대체하는 존재로 분석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 인물이 악인이 아닌 비극적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단순한 서사적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구조적 고발임을 확인했다.

납치라는 수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과 함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범죄적 수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시되었고, 그 책임 또한 결국 역사를 은폐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피에르 부르디외 - 상징적 폭력

명성황후의 재현 방식은 부르디외의 상징적 폭력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발제문은 황후를 희생된 국모로 재현하는 방식에 독자가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징적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피해자의 시점을 빌린 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복원된 것은 피해자 자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건의 비극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황후는 여전히 서사적 도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독자들이 이 재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 서사의 아비투스(아비투스)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소결 : 복원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에서 이루어진다

발제문 논의를 마무리하며, 세 이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다. 알박스의 집단 기억은 소설이 을미사변을 한국 사회의 공유된 기억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라의 기억의 터 개념은 납치범이라는 인물이 왜 존재해야 했는지, 즉 제도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 무게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상징적 폭력 개념은 이 복원 자체에 균열을 낸다. 기억을 복원한다고 할 때, 그 복원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과 언어로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 서사의 도구로 재배치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복원된 기억을 마주한 우리는 그 지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발제문 논의를 마쳤다.

활동 결과

‘소설은 역사를 복원하는가, 소비하는가’라는 질문은 토론과 이론적 분석을 거치며 더 선명해졌다. 또한 이 물음은 이 소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 서사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라는 데에 팀원 모두가 공감했다. 우리는 소설이 제공하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이 휘발된 자리에 행동을 채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 복원이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승자의 기록과 패배자의 기억, 기억의 정치학 (1)

- 2026. 04. 06. 『황태자의 납치사건』 독후 활동 -

I. 기억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구성하는가?

이 소설은 올리비엔(1895)이라는 허구적 역사를 통해 당시 스릴러와 교차시키며 재조명한 다.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화하지 않은 기억이 어떻게 유희-재구성되는지를 묻는 텍스트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패배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방식을 의미할까?

II. 패배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방식

이 소설은 올리비엔의 기사가 발간-복제할 위급 초조 과정을 통해 당시 사건의 실체로 접근한다. 패배자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복원함으로써, 교과서의 건조한 서술이 지우는 인강적 고통을 살려낸다는 것이 핵심 서사 전략이다. 이것은 복원된 패배자의 목소리 회복이다, 아니면 또 다른 진용인가?

1. 교사 서술 형식 - 집단 기억

소설의 정치

소설은 현대(납치 사건)와 과거(1895년 올리비엔)를 반복적으로 교차 서술한다. 독자는 납치 행의 증거를 추적하는 한편 서사를 읽는다. 올리비엔 원장의 목격담-당면담의 행동-기록 조차 고통으로 읽힐까? 소련이다. 이 형식은 '역사는 집단 사건의 언어와 지공'이 납치 사건의 한 이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서술 구조 자체로 직면시킨다.

로리스 알박스 - 집단 기억

알박스는 기억을 개인 삶의 문제기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우리가 문명자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특정 집단(가족, 친구, 동료)과 연결되어 있다. 즉 순순하게 개인적인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 기억은 왜곡을 낳는다.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단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이 기억되고 어떤 사건이 망각되는지는 그 집단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설의 교사 서술 형식은 올리비엔이라는 사건을 한국 독자의 집단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적 물음 재구성이다. 교과서가 두 줄로 처리하는 사건을 통해 서사의 연결함으로써, 독자는 그 사건을 자신의 주관 집단 기억으로 재구성한다. 동시에 이 집단 기억이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필요에서 생산-요구, 발달-경쟁-중개-위해-재구성되고 있는지도 묻어야 한다.

III. 납치행의 장제 - 기억의 장소

소설의 정치

소설의 납치행은 단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올리비엔 패배자의 후손, 혹은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살아있는 목격자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역사적 진실을 '재현'하는 존재다. 납치라는 극단의 행위는 제도가 기억을 지운 자리에서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려진다.

파레트 노라 - 기억의 터

노라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앞두고 기억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에는 기억이 공동체의 형성-유지-소멸에 관여했다. 농촌 공동체, 종교 의례, 세대 간 구술 전통이 기억을 지탱해주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이 살아있는 기억의 망장이 파괴되면서, 서사는 특정 장소-기념물-문예-기록을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이 기억의 타도, 역설적으로, 기억의 장소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기억이 이미 살아있지 않다는 신호다. 박물관이 생기는 것은 기억이 일장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납치행은 살아있는 목격자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후손, 혹은 역사적 진실을 재현하는 존재다. 그는 제도가 만들어내지 못한 기억의 장소를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재현한다. 소설이 이 인물을 억압된 언어-비극적 존재로 그려낸 것은, 중동화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보여준다. 사회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III. 명성향후의 재민 방식 - 상징적 목적

소설의 정치

소설은 명성향후를 조연의 국오, 위력에 맞선 민족의 상징으로 재현한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이기 이전에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읽히게 된다. 죽음의 역사적 정당한 담임은 민족의 서사적 기원이 된다. 황후 자신의 내면-대항-목소리보다 '정당한 국모'라는 역할이 선포되어 나타난다.

파레트 부르디외 - 상징적 목적

부르디외는 권력이 총질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상징적 목적은 피지배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지배를 지탱시키고 정당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권력 작동 방식이다. 이것이 올리비엔 패배자의 딸, 로리스 알박스라는 이름은,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버렸다. 이 관점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이부투스(Infinitus)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인식 방식, 취향, 행동 양식 자체가 이미 특정 권력 관계를 내면화한 결과다. 어떤 대 특정 역사 서술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이부투스의 작동이다.

소설이 명성향후를 '희생된 국모'로 재현하는 방식은 상징적 목적의 사회학적 분석할 수 있다. 향후를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읽게 하는 것은 민족주의 서사의 문법을 지탱해주는 것으로 재현된 것이다. 독자는 이 재현 방식에 아무런 의심할 수 없이 동의한다. 그로써 바로 상징적 목적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패배자의 기억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황후 자신의 내면과 목소리가 아닌 민족 서사의 필요가 그 복원을 주도하고 있다.

III. 복원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에서 이루어진다.

알박스의 집단 기억은 이 소설이 올리비엔을 한국 사회의 공유했던 기억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라의 기억의 장소는 납치행이라는 인물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즉 제도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 무게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상징적 폭력은 이 부분 이해에 균열을 낸다. 소설이 기억을 복원한다고 할 때, 그 복원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과 언어로 이루어진다. 패배자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행위가 동시에 패배자를 특정 서사의 도구로 재배치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 복원된 기억을 마주한 우리는 그 지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핵심 논제

논제 1. 대중 서사는 집합 기억 형성의 정당한 경로인가?

교과서와 학술서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소설이 올리비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때, 그 기억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픽션 장르가 집단 기억의 재개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는가?

논제 2. 제도가 기억을 복원할 때 그 역할은 누가 지는가?

납치행이라는 극단적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사적 진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소설의 서사 구조는, 중시 제도가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교묘한데, 국가-제도-공동체, 누가 그 실패의 책임을 지어 하는가?

논제 3. 패배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행위는 언제 또 다른 폭력이 되는가?

소설이 명성향후를 희생된 국모로 재현할 때, 그 복원은 황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민족주의 서사의 필요를 반영한다. 패배자를 특정 프레임 안에 위치 짓는 작업이 상징적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 1 -

- 2 -

- 3 -

[단체 사진]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4. 13. (월). 18:00-20:00			장소	씨스퀘어 스터디룸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황태자비 납치사건			저자	김진명
	출판사	새움	출판연도	2010. 02. 28.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승자의 기록과 피해자의 기억, 기억의 정치학 (2) : 문학은 공식 역사에 저항할 수 있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1회차 활동에서 소설의 서사적 전략과 집단 기억의 재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2회차 활동에서는 국가 권력이 역사를 공식화하는 과정과 문학이 그에 맞서는 방식에 대해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사전에 발제문을 공유하고 핵심 논제에 대한 의견을 각자 정리해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진행했다.</p> <p>2. 발제문 의견 공유</p> <p>① 논제 1. 제도 바깥의 기억 유통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p> <p>- 소설이 수십만 독자에게 음미사변의 진실을 유통시키지만, 결말에서 제도적 사과와 책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항 기억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저항의 실천인가 아니면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가?</p> <p>한*민 : 실질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실로 어렵지 아니한가?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항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항의 실천들이 하나씩 누적되어 오래 모였을 때 그것은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사적 위안 또한 저항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 역사를 잊지 않았고, 고통을 잊지 않았으며 그날의 기억을 새기고 있다는 작은 신호만으로도 그것은 저항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고*연 : 책 속에서는 일본의 황후가 사과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행위이다. 물론 이런 사과라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도적 차원의 사과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품이 전달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황후가 사과함으로써 서사적</p>						

위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항의 실천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김*원 : 제도 바깥의 기억 유통은 분명한 저항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체계 안에서 주변화된 기억이 다른 회로를 통해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공식 역사의 구성성과 권력성을 폭로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라는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다.

소설이 베스트셀러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식, 즉 독자의 분노를 자극하고 서사적으로 해소하는 구조는, 그 분노가 실질적 청산 운동의 에너지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책을 덮는 순간 정서적 카타르시스는 발생하지만, 그것이 제도적 사과 요구나 역사 교육 개정 운동 같은 집합 행동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소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제도 바깥의 기억 유통은 의식의 변화와 공론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억의 유통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감정적 수용을 넘어 그 기억을 집합적 실천과 연결하는 정치적 매개가 필요하다.

이*진 : 저항의 실천이다. 당장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선 서사적 위안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저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 것과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회에는 어떻게든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정*채 : 얼핏 보면 소설 속 대항 기억은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말에서 마사코가 문서를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제도적 책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서사적 위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다. 제도적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도 바깥의 대항 기억의 역할은 변화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배경을 만드는 것이다. 수십만 명의 독자가 이 소설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실천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가 권력의 불완전한 서사는 점점 더 유지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항 기억은 제도적 변화로 즉각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확장시키는 저항의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② 논제 2. 서발턴을 대신해 말해주는 문학은 해방인가, 또 다른 억압인가?

- 소설은 제도적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작가의 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침묵하는 자를 대신 발화해 주는 행위가 하위주체를 해방시키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전유하는가?

한*민 :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전유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어쩔 수 없이 독자들의 이해도와 연령층, 사전 지식은 다양하기에 선불리 저자의 이야기가 주입될 경우, 이는 단순한 목소리 전유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목소리의 전유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저자의 책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고, 해당 사항을 연구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연 : 문학이 침묵 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행위는 일정 부분 하위주체를 보여주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목소리가 작가의 언어로 재구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독자들은 이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목소리를 대신 말하는 과정에서 전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속에서도 ‘드러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 해방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제도적 언어로는 수신되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험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복원된 목소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소리가 묵살된 현실을 방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스피박이 지적하는 억압의 논리는 더욱 구조적이다. 서발턴을 대신 말해주는 행위에서 복원의 언어는 지배 언어 체계 안에서만 작동한다. 소설 속 피해자들은 한국 남성 작가의 언어와 민족주의 서사의 문법으로 재해석된다. 이 재현이 피해자 자신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검증할 수 없으며, 그 불일치는 또 다른 전유를 남긴다.

이 모순을 해소하는 완전한 방법은 없다. 다만 차선으로서, 대리 발화를 수행하는 이가 자신이 대리자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단일화하거나 평면적으로 도구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가 가진 한계를 텍스트 안에 노출하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해방과 억압은 대리 발화 자체가 아니라, 그 수행 방식과 이를 수행하는 이의 윤리적 성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진 : 문학이 피해자를 대신해 말하는 것은 해방이라기보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작가가 노력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실은 결국 변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사자가 직접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조차, 시간이 흐른 뒤에 기억을 꺼내 글로 옮기다 보면 원래 사건과 똑같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과정에서 생기는 '빈틈' 때문에 타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작가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를 작가의 생각 속에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

정*채 : 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제도적 언어로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존재들에게 서사적 공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작가의 언어와 시각으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의 실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직접 말할 수 없고, 그들의 고통은 소설 속 서사나 긴장감을 위한 도구로 소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는 침묵을 깨주는 척하며 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작가 자신의 서사적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발턴을 대신 발화하는 행위는 해방이 아니라, 해방처럼 보이는 또 다른 억압에 가깝다.

③ 논제 3. 대항 기억이 문화 상품이 될 때 저항의 언어는 어떻게 변형되는가?

-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유통되는 역사 소설은 독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동시에 서사적으로 해소한다. 저항의 언어가 소비의 구조 안으로 편입될 때, 그것은 기존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는가? 문학이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로 기능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한*민 :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단순히 제시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가를 담아내야 한다. 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암만 열심히 연구해 열정적으로 책을 집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읽는 독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문학적 재미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다방면적 이야기를 다뤄야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연 : 문학에서 재현되는 역사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인물과 구조를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서사를 소비하며 성장한 독자들이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저항의 언어 역시 기존의 틀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항의 기억이 문화 상품으로 소비될 때, 그것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오히려 체제 내부에서 순환되는 콘텐츠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이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서사 구조 자체를 전복하거나 새로운 관점과 형식을 제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문학은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보다 그 안에서 반복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원 : 진지전적 관점에서 문학은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문화적 진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항의 언어가 상

업 출판 시장에서는 헤게모니 안으로 편입되었을 때도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다.

성격의 변화는 두 층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의 층위에서, 납치 스릴러라는 장르 문법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분노를 서사적 긴장감과 결말의 카타르시스로 전환시킨다. 독자는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무게를 소설적 해소를 통해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 행동의 동기를 약화시킨다.

내용의 층위에서, 대항 기억이 민족주의 서사의 언어로 포장될 때 그것은 기존 헤게모니의 일부인 민족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 일본에 대한 분노와 민족 수난의 서사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상식과 공명하며, 그 공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진 : 저항을 담은 책이 단순히 베스트셀러로 소비되기만 한다면, 이는 그저 기존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안전판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그렇구나"라는 감상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서사 속의 문제를 현재의 우리 사회와 연결해 고민하는 능동적인 사고를 할 때, 문학은 비로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책 읽기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현실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때, 문학은 기존 체제에 맞서는 진정한 대항의 기능을 한다.

정*재 :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안전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소설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처음 접한 독자에게는 이가 저항 에너지의 소진이 아닌 분노의 출발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문학이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로 기능하려면 실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시민 교육, 사회 운동과 같은 실천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문학은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로 기능하게 된다.

3. 사회학적 분석

미셸 푸코 - 대항 기억

푸코의 대항 기억 개념을 결말 구조에 적용했을 때, 소설이 을미사변의 세부 진실을 수많은 독자들에게 유통시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체계 바깥에 기억 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항 기억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결말에서 제도적 책임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항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독자의 분노가 서사적으로 해소되는 순간 그것이 실질적 청산 운동의 에너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럼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으면 사회에는 어떻게든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서 서사적 위안도 저항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의 반박도 나왔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납치라는 극단적 수단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문은 소설에서 납치만이 유일한 발화 수단이 된다는 서사 구조 자체가 스피박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체현한다고 분석했다. 외교·법·언론 등 모든 공식 채널이 역사적 진실을 묻어버린 상황에서, 납치만이 일본 황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화 방식은 피해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납치범은 피해자를 대신해 말하는 또 다른 대리인이고, 소설 자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작가의 언어가 채운다.

그 지점에서 타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고, 작가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대신하는 건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를 작가의 생각 속에 가두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유효하다는 의견과 복원하는 자의 필요가 복원을 주도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전유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체현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토니오 그람시 - 헤게모니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베스트셀러라는 형식에 적용했을 때, 이 소설이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식 자체가 대항 기억으로서의 성격을 제약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그 결론은 엇갈렸다. 저항의 기억이 문화 상품으로 소비될 때 기존 틀 안에서 순환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과 역사적 진실을 처음 접한 독자에게는 분노의 소진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았다.

문학이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가 되려면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문학적 재미 또한 전제되어야 독자에게 닿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결 : 대중 서사를 통한 대항 기억의 딜레마

토론을 마무리하며 세 이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다. 푸코의 대항 기억은 소설이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체계 바깥에서 을미사변의 진실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저항의 실천으로 읽힌다. 그러나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은 소설 자체가 또 다른 대리 발화 구조임을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작가의 언어가 그 목소리를 구성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이 역설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다. 대항 기억으로 기능하려는 문학이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소비될 때, 저항의 언어는 기존 헤게모니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 문학이 대항 기억이 되려면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장에 유통되는 순간 상품화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확인했다.

활동 결과

토론을 통해 확인한 구조적 딜레마 안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독자의 역할이라는 데에 팀원 모두가 공감했다. 저항이 되느냐 아니냐는 책을 덮은 이후 독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긴 토의 끝에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무엇을 복원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며, 감정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 해소를 위한 집합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함께 가지기로 결론지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승자의 기록과 피해자의 기억, 기억의 정치학 (2)

- 2020. 04. 13. '행동에서 남치사관' 독후 활동 -

1. 문학은 공식 역사에 저항할 수 있는가?

을미사변 직후 일본은 이 사건을 조선 내부 정변으로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재판 후 무죄 판결했다. 공식 기록은 공식에서 일본의 개입은 전혀 축소되었다. 소설은 이 승자의 기록에 있어, 피해자의 기억을 제도 바깥에서 유통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국가 권력이 공식화한 역사 서술에 진정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항의 언어가 소비되는 순간 그 저항은 이미 포획되는가.

2. 문학의 대항 기억 가능성과 한계

1. 결말의 구조 - 대항 기억

소설의 장치

소설의 결말에서 을미사변의 진실은 실질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설은 이 불완전한 결말을 통해 역사 청산의 한계를 드러낸다. 동시에, 남치라는 제도 바깥의 극단적 행위만이 진실을 공개할 수 있었다는 서사 구조는 제도의 재능의 무능함을 조망한다.

미끼 후고 - 대항 기억

푸코는 계보학(genealogy)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우리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추적했다. 지식-권력(knowledge-power) 개념이 핵심이다.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고 공적 기억이 되는 과정 자체가 권력의 작동이다. 국가는 특정 역사 서술을 정당화하며 권위화함으로써 그에 맞서지 않는 기억들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진실할 수 없는 것으로 추락한다. 대항 기억은 단순한 다른 버전의 역사가 아니다. 공식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폭로하는 실천이다.

소설이 을미사변의 세부 진실을 수렴한 독자에게 유통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체계 바깥에서 기억이 순환하는 대항 기억의 실천이다.

3. 남치라는 극단적 선택 -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소설의 장치

소설에서 남치만이 선택한 수단은 남치, 즉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폭력이다. 소설은 이 선택의 단란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의 한계로 돌리지 않는 것이 가능한 수 있는 유일한 결과 방식으로 그린다. 최고 법원도 동 모순 공식 재판의 역사 진실을 끌어내린 상황이다. 남치만

이 일본 황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연가라 된다.

카타르티 데 아르코보르티 스피박 -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스피박은 1988년 논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의 핵심 골격을 던졌다. 서발턴(subaltern)은 그 당시에게서 배려를 받지 못한 계층으로, 사회적 사회 구조 안에서 발언권과 대표성을 박탈당한 하위 집단을 가리킨다.

스피박의 핵심 주장은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해도 의의 있는 말대로 수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발턴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려 할 때, 그것을 읽을 언어 체계 자체가 이미 지배 집단인 것이다. 더 나아가 스피박은 서발턴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제도적 존재가 아니라, 복음은 서발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대항자의 언어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남치만이 유일한 발화 주체가 된다는 서사 구조는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소설 자체가 또 다른 대항 발화 구조다. 피해자들은 역사의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남치만 한국인 작가가 그 목소리를 구성한다. 서발턴의 침묵을 채우는 것이 누구의 언어인지를 묻는 것. 그것이 스피박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다.

3. 베스트셀러라는 형식 - 헤게모니와 기억의 상품화

소설의 장치

이 소설은 수렴된 서사 기반 베스트셀러이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을미사변에 분노하고,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책을 덮은 순간, 그 감정은 서사적으로 해소된다. 소설이 상업적 출판 시장에서 유통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항 기억으로서의 성격을 제약한다.

안토니오 그람시 - 헤게모니

그람시는 '대항 기억'이라 불리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것은 지배가 출몰이 아니라 지식 문화 교육을 통해 피지배자의 동의를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헤게모니다. 지배 집단은 자신의 체제관을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 피지배자가 그것을 자명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한다. 그 과정은 위대 장악기 위대 장악기(hegemony of domination), 즉 문화교육이란 등 상부구조 영역에서 대항 헤게모니를 지시해 구축해 나간다. 이 맥락에서 문학은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장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헤게모니를 포획하는 문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식은 후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독자의 분노가 서사적으로 해소되고 소비되는 순간, 그 분노는 실질적 청산 운동의 에너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항 기억이 문화 상품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기존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한편이다.

3. 대항 기억은 누구의 회로 안에서 작동하는가?

푸코의 대항 기억은 이 소설의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체계 바깥에서 을미사변의 진실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저항의 실천으로 읽힌다.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은 남치라는 극단적 수단 이 때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소설 자체가 또 다른 대리 발화 구조임을 폭로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는 이 역설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다. 대항 기억으로 기능하려는 문학이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소비될 때, 그것은 저항의 언어를 헤게모니의 회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학이 대항 기억이 되려면 유통되어야 하고, 유통되는 순간 상품화의 위험에 노출된다. 저항과 포섭 사이에서 문학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

IV. 핵심 논제

논제 1. 제도 바깥의 기억 유통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소설이 수렴된 독자에게 을미사변의 진실을 유통시키지만, 결말에서 제도의 사과와 개혁은 완수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항 기억이 제도의 변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저항의 실천인가 아니면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가.

논제 2. 서발턴을 대신해 말할 수 없는 행방인가, 또 다른 억압인가?

소설은 제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작가의 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침묵하는 지용 대신 발화해주는 행방기 서발턴제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전유하는가.

논제 3. 대항 기억이 문화 상품이 될 때 저항의 언어는 어떻게 변형되는가?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유통되는 형식 소설은 독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동시에 서사적으로 해 소한다. 저항의 언어가 소비의 회로 안으로 편입될 때, 그것은 기존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한편이 되는가. 문학이 진정한 대항 헤게모니로 기능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단체 사진]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4. 17. (금). 18:00-20:00		장소	10416 강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
	출판사	창비	출판연도	2014. 05. 1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파괴된 생애, 전이된 고통 - 구조적 폭력의 시간성 (1) : 『소년이 온다』는 5.18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소년이 온다』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성적 서술 구조와 2인칭 시점을 통해 재구성한 소설이다. 우리는 소설이 역사의 침묵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채워내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5·18의 복잡성을 충분히 드러내는지 질문하고 싶었다. 각자 소설을 읽고 사전에 공유된 발제문을 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해 온 뒤, 순서대로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논제별 토론을 진행하고, 소설의 서술 전략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p> <p>2. 독후 소감 나누기</p> <p>한*민 :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소년이 평범하고 즐겁게 일상을 즐기다, 그 평화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여준다.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 작전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는 독자로 하여금 가슴이 저릿하게 만들 정도였다. 특히나 시신에 버젓이 남겨진 상처의 자세한 서술은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이 기반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영영 믿고 싶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무뎌져서도 안 될 아픔이기에 우스울지언정 사명감으로라도 책을 곳곳이 읽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p> <p>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사회에 여실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소년이 온다』는 한 개인인 소년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책이지만, 이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일이다.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남았던 말은 연대, 연대의 중요성이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또한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였다. 이는 마치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고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내던진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같기도 했다. 또한, 잊지 않는다, 똑똑히 피에 서린 듯 기억한다는 어투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다짐에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p>						

다.

책을 읽는 내내 사실 너무 힘겨웠다. 한 페이지마다 녹아든 글자들이 못내 마음이 아파 읽는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그런 기억을 이고 살아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 노력하며 읽어 나갔던 것 같다.

고*연 : 『소년이 온다』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인물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 독자가 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었다. 단순히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그 비극을 더 깊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동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던 동호가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 안타깝고 슬펐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또 죽은 사람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부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까지도 슬픔과 고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희생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됐다.

김*원 : 나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이 나에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장소들이다. 익숙한 장소들에 스민 아픔이 새삼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견디기 어려워,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내 가족들이 직접 겪은 역사를 나는 보고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그 참혹함이 문학적 언어를 통해 재현될 때, 책을 덮고 싶을 정도로 버거웠다. 이 책을 읽으며 나 또한 전이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피해자의 생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며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은 끔찍한 비극을 담담하고 절제된, 그러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한 문장을 통해 풀어낸다. 이 문체가 역설적으로 광주의 억눌림 아픔을 더욱 잘 나타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맘 편히 울 수도 없었다는 전언처럼 광주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때로는 말을 잊지 못하는 침묵으로 그 아픔을 전했다. 오랫동안 말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던 사람들이 몸에 익힌 방법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난 한강의 문체가 바로 그 방식과 닮아있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말해 질 수 없었던 것, 지워지고 왜곡되었던 것, 그 침묵의 역사를 닮아있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자라온 도시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마주한 것 같았다.

동시에 인간성을 상실한 잔혹한 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칼 앞에 쓰러져 간 사람들을 시신의 곁을 지키고, 주먹밥을 나누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으려 했던 평범하지만, 불의를 묵인하지 못하는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었다.

책을 덮고 하나의 고민이 남았다. 꼭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자고 서로 약속하던 그들을, 이제 그 증언을 이어받는, 그 엄혹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들을, 그리고 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좀 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난 그들이 산화된 땅 위에서 평온할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앞서서 가나니, 산 자 여 따르라’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 구절이 내 고민을 조금은 대신할 수 있을 듯하다.

이*진 : 이 책은 일상적이고 묵묵하게 글을 서술하는 방식과, 그와 대조되는 비극적인 내용 사이에서 오는 울림이 무척 컸다. 문장은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처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의 이야기가 가장 깊게 각인되었다. 소설 속 부모는 언어장애가 있는 막내가 군인들에게 맞아 죽었다며 아이를 찾아 나선다. 나는 실제로 당시 청각장애를 가졌던 한 시민이 군인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기록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소설 속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참혹한 진실이라는 사실이 피부에 확 와닿았다. 그전에도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마주하며 비로소 그날의 고통이 실존하는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았다.

군인들이 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고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지 묻는 장면 또한 인상적이었다. 나도 예전에 보았던 당시의 사진 속에서 태극기로 덮인 관들을 보며 비슷한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다. 죽은 사람도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했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국가의 상징으로 추모하는 그 역설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라고 되묻는 대답은 그 어떤 설명보다 명확하게 기억에 남았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을 끝까지 읽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이자 일이라고 생각하며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오늘날 이런 책을 읽고 자유롭게 내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조차, 당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깊게 남았다.

정*채 :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머릿속에서는 이 폭력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명령 체계 안에서 사유를 멈춘 평범한 사람들과 그 구조를 설계한 소수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사회 전체 중 폭력의 책임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넓게 퍼져 있었다. 특정 악인을 지목할 수 없는 구조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을 지목하라 한다면 구조의 문제를 짚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 구조의 문제로만 읽고 싶지 않았다. 선택의 책임은 결국 개인이 지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애썼다. 『소년이 온다』는 폭력의 책임을 구조에 돌리는 것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의문만 남겨둔 채 끝난다. 이 소설은 답을 따로 기재한 소설이 아닌 독자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라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3. 발제문 공유

① 논제 1. 소설의 다성 구조는 5·18의 역사적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는가.

- 소설은 도청 안에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그러나 소설이 선택한 인물들은 항쟁의 특정 위치-도청을 중심으로 한 직접 피해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광주 밖에서 방관했던 이들, 계엄군 측에 있었던 이들, 5·18을 침묵으로 방조한 이들의 목소리는 이 소설에 없다. 이 선택적 다성성은 5·18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어떤 면을 가리는가.

한*민 : 소설은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어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침묵시킨다. 이러한 다성적 서술은 모든 목소리를 포함하지는 않고 이에는 계엄군이나 국가 권력 내부의 내실한 시선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단순히 누군가의 측면을 누락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가해 권력의 이해관계, 권력 구조 등을 면밀히 재현하고 서술하기보다, 오래 침묵 당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연 : 소설의 다성 구조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5·18의 참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살아남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남겨진 가족들의 목소리가 교차 되면서 독자는 단순히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특히 각 인물이 느끼는 공포, 죄책감, 슬픔이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5·18이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상처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의 다성적 구조는 5·18의 역사적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낸다고 생각한다. 단, 여기서 충분함의 기준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다. 소설은 계엄군과 방관자 등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다. 그러니 이를 결핍으로 읽는 시선에는 암묵적으로 모든 목소리가 동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나는 그 전제 자체에 대해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은 수십 년간 계엄군과 신군부의 논리에 의해 '폭동'이라는 철저히 한쪽에 편중된 서사로 규정되어 왔다. 이 논리는 이미 충분히, 오히려 과잉되게 발화되어 왔다. 반면 도청 안에 남았던 이들, 살아남아 수십 년을 강요된 침묵 속에 산 이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리고 지워진 채 존재했다. 이 구조적 불균형 앞에서 한강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에만 집중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윤리적 선택이다. 소설이 가해자의 내면을 서술하지 않는 선택은 복잡성의 포기가 아니라, 어떤 복잡성을 복원할 것 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설은 단순히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항쟁의 한복판에 있던 자와 수십 년 후 현재를 살아가는 자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치된다. 이 구조는 바흐친이 말한 어떤 목소리도 최종 권위를 갖지 않는 소설, 즉 다성적 소설의 형식을 5.18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그래도 적용한 것이다. 국가가 '폭동'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광주를 규정지으려 했다면, 소설은 여러 서사의 광주가 존재했음을 형식 자체로 보여준다.

이*진 : 이 소설이 도청 안의 인물들이나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한 것은 5·18이라는 사건의 실상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 질문에서 언급한 광주 밖의 방관자들이나 계엄군, 침묵했던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은 그들의 입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해 측이나 방조했던 이들의 서사를 덧붙이는 것은 자칫 사건의 폭력성을 희석하거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당화의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 작가가 5·18을 주제로 글을 쓴 목적이 이 비극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면, 고통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된 폭력이었기에, 피해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성 구조가 모든 입장을 균등하게 담아내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사건의 참상을 직시하게 만드는 이 소설만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정*재 : 소설 『소년이 온다』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다른 이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다성성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 한계를 그저 서사적 불균형으로 읽기 전에 그것이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계엄군의 논리나 방관자의 변명 등은 이미 공식 역사 속에서 수십 년간 과잉으로 존재해 왔다. 반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지워지기만 했다는 맥락에서 소설이 피해자만의 목소리를 택한 것은 불균형이 아니라 기울어진 역사를 되돌리기 위한 대항적 균형 잡기로 읽혀야 한다.

작가는 이 서사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스스로 밝힌다. 처음부터 이 소설은 5.18 전체를 담으려는 시도가 아니고 가장 오래 지워져 있었던 특정 층위의 진실을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그렇기에 소설의 선택적 다성성은 한계이면서 동시에 의식적으로 선택한 윤리적 결단으로 읽혀야 한다.

② 논제 2. 소설의 현재형 서술은 5·18을 '끝난 사건'으로 읽히지 않게 만드는가.

- 소설은 1980년 5월의 장면들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순간들이 있다. '너는 관을 나른다', '그는 복도를 걷는다'. 이 시제의 선택은 독자와 사건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좁히고, 40년 전의 광주를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로 감각하게 만든다. 반면 살아남은 자들의 현재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뒤섞인 채 서술된다. 이 시제의 교란은 단순한 문체적 선택인가, 아니면 5·18이 과거에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건임을 서술 구조 자체로 각인시키는 전략인가.

한*민 : 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화의 기억은 아직 우리의 정서에 녹아들어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억하든 간에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더불어, 이어져야만 한다. 역사가 낳은 결과와 상처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향유하여야 한다. 그 희생과 고통이 유의미하기 위해서 후손들은 최소치의 노력만큼은 해주어야 하고, 그 최소치의 노력이란 지난 역사를 단순히 과거로 해석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실임을 기억하는 것이

다.

고*연 : 소설에서 현재형 서술을 사용하는 방식은 독자들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독자가 마치 그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하며, 5·18이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가 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의 현재형 서술은 5.18을 현재화해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제의 선택은 단순한 문체적 효과가 아니라 '폭력의 시간성'을 형식 자체로 구현한 전략으로 읽힌다. '너는 관을 나른다', '그는 복도를 걷는다'와 같은 현재형 문장들은 독자와 1980년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무너뜨린다. 40여 년 전 광주를 지금 이 순간의 일로 감각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5.18이 역사 교과서 속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임을 독자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은숙과 선주의 연대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뒤섞인 채 서술된다. 1980년의 기억이 현재를 침범하고, 현재가 1980년으로 되돌아가는 이 서술은 상실이 과거로 처리되지 못하고 연대를 계속해서 잠식하는 상태와 그 심리적 현실을 문장으로써 재현한다.

이*진 : 소설에서 사용된 현재형 서술은 5·18이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숨 쉬며 지속되는 사건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와 40년 전 광주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를 단순히 좁혀버린다. 관을 나르고 복도를 걷는 행위를 현재형으로 마주할 때, 독자는 이를 먼 과거의 기록화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로 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 좁히기가 중요한 이유는 5·18이 여전히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나 진상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건을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들이 존재한다. 만약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면 오늘날까지 이런 소모적인 잡음들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소설의 현재형 문장들은 독자를 방관자의 위치에서 끌어당겨 사건의 한복판에 세워둔다. 과거의 일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기억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전략 덕분에 독자는 5·18을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마주하고 책임져야 할 현재의 아픔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정*채 : 소설의 현재형 서술은 단순한 문체적 선택이 아니다. 소설의 현재형 시제 선택은 독자와 사건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좁힌다. 40년 전의 광주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로 감각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문체적 선택이었다면 시제의 적용이 소설처럼 일관된 패턴을 보일 필요가 없다. 죽은 자에게 현재형을 부여하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교란된 시제를 부여한 구분은 우연이 아니다. 생존자에게 5.18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며, 그 미완결성이 시제에 드러난 것이다. 공식 역사가 5.18을 1980년에 종결된 사건으로 봉인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고, 이 소설의 시제는 그 봉인을 거부하는 전략으로서 작용한 것이다.

③ 논제 3. 소설의 호명 방식은 인물을 어떤 존재로 위치시키는가.

- 소설은 인물을 부르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 동호와 정대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떤 인물은 '소년', '어머니', '너'처럼 고유명 없이 호명된다. 이름을 가진 인물과 역할로만 불리는 인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익명의 호명은 그 인물을 보편적 존재로 확장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고유성을 지우는가. 특히 '너'라는 호명은 독자를 직접 사건 안으로 소환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정체성을 특정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 호명의 정치학은 소설이 5·18을 누구의 이야기로 만들려 하는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민 : 『소년이 온다』에서 보여진 호명의 정치학은 5.18 사건을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보다도 이름 없이 희생되고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려는 시도와 깊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명이란 본디 망각에 맞서는 행위이지 않은가? 국가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숫자 등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소설은 그들에게 이름과 목소리를 부여한다. “누구였는가”를 끝까지 기억하려는 태도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너”라는 호명은 희생자들의 고통 혹은 기억을 독자들이 함께 떠안게 된다. 이는 5.18이 지역인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인, 공동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효과를 가진다.

고*연 : 소설에서 인물마다 다른 호명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름이 있는 인물들은 구체적인 개인으로 기억되며 독자가 사건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소년’, ‘어머니’, ‘너’와 같이 이름 없이 불리는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넘어 당시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독자가 자신을 인물에 투영하게 만들며, 사건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이름 없는 호명은 개인의 고유성을 지우는 동시에 그 인물을 보편적 존재로 확장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다. 그중에서도 ‘너’라는 호명은 가장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동호와 정대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은 그들을 특정 개인으로 고정시킨다. 반면 ‘어머니’나 ‘소년’이라는 호명은 개인을 넘어선다. 동호의 어머니는 ‘동호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이 호명은 그녀를 5.18로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의 자리에 놓는다. 역할로 호명하는 것이 개인의 고유성을 지운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 익명성이 피해를 보편화하고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 죽은 정대는 동호를 ‘너’로 부른다. ‘너는 관을 날랐다’, ‘너는 그날 밤 도청에 남았다’ 이 2인칭 서술은 독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소설을 읽는 나는 순간 ‘너’가 되어 도청 안에 서 있게 된다. 5.18이 오랫동안 ‘남의 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과 무관한 한 지역의 비극으로 거리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너’라는 호칭은 이 거리를 제거한다.

결국 소설의 호명 방식은 이름, 역할, ‘너’의 순서로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존재를 사건 안으로 끌어들인다. 동호라는 이름이 역사 속 개인을 복원하고, ‘어머니’라는 역할이 그 고통을 보편화하며, ‘너’라는 호명이 독자를 방관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이 세 층위가 함께 작동하면서 소설은 5.18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재위치 시킨다.

이*진 : 소설에서 인물을 고유명사 없이 호명하는 것은, 이 비극이 단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인물을 이름으로만 불렀다면, 독자는 이를 그 인물 개인에게 국한된 서사로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어머니’, ‘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인물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당시 광주에 있었던, 혹은 그 고통을 겪은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보편적 존재로 확장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특정인의 고유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누구든 대입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의 무게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너’라는 호명은 독자를 관찰자의 위치에 머물게 두지 않고 사건의 한복판으로 직접 끌어들인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가 ‘너’가 되어 소년의 시선을 공유하고, 그가 느꼈던 공포와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호명 방식은 5.18을 먼 과거에 존재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 ‘나’의 이야기로 치환시킨다. 5.18을 보편적인 인간 존엄의 문제로 격상시켜 누구도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전략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정*채 : 소설 속 익명의 호명은 개인의 고유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보편적 존재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름은 특정 개인을 지시하나 소년이나 어머니라는 호명은 특정인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년과 어머니를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 광주에는 수많은 소년이 있었고 시신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익명의 호

명은 개인의 자리에서 같은 처지에 놓였던 모든 이들을 불러세운다.

특히 너라는 호명은 확장을 독자에게까지 밀어붙인다. 소설 속 문장에서 독자는 더 이상 안전한 거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소설은 독자를 사건의 내부로 끌어들이며 5.18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닌 모두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호명의 정치학은 결국 5.18을 누구의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설의 답이다.

4. 사회학적 분석

미하일 바흐친 - 다성 소설

소설의 다성적 구조를 바흐친의 다성 소설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국가가 광주를 ‘폭동’, ‘불순세력’, ‘좌익 난동’과 같은 하나의 언어로 봉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소설의 다성적 구조는 국가의 공식 언어에 맞선 형식적 저항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각 장마다 다른 인물의 시점과 서술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도 광주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소설이 선택한 목소리들이 바흐친이 말하는 완전한 의미의 다성성, 즉 어떤 목소리도 최종 권위를 갖지 않는 구조를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소설이 선택한 인물들은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직접 피해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광주 밖에서 방관했던 이들이나 계엄군 측에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는 소설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조가 기존에 편중된 발언권을 고려한 윤리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바흐친의 완전한 다성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 선택적 다성성이 5.18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어떤 면을 가리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르조 아감벤 - 증언의 불가능성

소설의 2장에서 죽은 정대가 살아있는 동호를 ‘너’로 호명하는 구조를 아감벤의 증언 이론과 연결하여 논의했다. 완전한 증인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며,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증언하는 불완전한 증인일 수밖에 없다는 아감벤의 논의가, 소설이 죽은 정대에게 목소리를 주는 서사적 선택을 설명해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구조는 문학적 장치이기 이전에, 공식 기록이 지워버린 증언의 자리를 서사로 대신하려는 시도처럼 읽혔다.

동시에 이 구조가 가진 역설도 논의했다. 아감벤이 지적하듯 완전한 증언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소설의 서사 역시 그 불가능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소설이 수행하는 것은 증언의 실현이 아니라 증언의 불가능성 자체를 가시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소설이라는 메신저 자체의 한계와 문학적 의의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셸 푸코 - 공식 역사와 권력

소설의 감각적 서술이 공식 기록이 지운 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푸코의 권력-지식 논의와 연결했다. 어떤 사건이 공식 역사가 되는 과정 자체가 권력의 작동이며, 신군부는 방송 통제, 기록 압수, 생존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폭동’이라는 서사를 공식화했다. 소설의 감각적 장면들, 즉 부패하는 시신의 냄새, 관이 부족해 맨바닥에 놓인 시신들, 아이를 찾아 시신 사이를 헤매는 부모들은 그 공식 서사가 지운 자리를 채우는 대항적 실천으로 읽힐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나아가 공식 역사의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과 발화 자체를 통제하는지도 논의했다. 5.18이후 수십 년간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폭도의 기억’으로 낙인찍힌 채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권력이 단순히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발화하는 방식까지도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소설이 이 침묵의 자리에 개인들의 목소리를 채워 넣는 행위는, 푸코적 의미에서 지식 생산은 권력 구조에 개입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소결 : 침묵을 채우는 것의 윤리

세 이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바흐친의 다성 소설 개념은 소설이 국가의 단일한 공식 언어에 맞서 복수의 목소리를 배치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푸코의 권력-지식 논의는 그 공식 언어가 어떤 권력 작동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소설의 감각적 서술이 그 지워진 자리를 채우는 대항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아감벤의 증언 이론은 그 실천이 가진 근본적 한계를 짚는다. 소설이 죽은 자에게 목소리를 준다고 할 때, 그 목소리는 완전한 증언이 아니라 불가능한 증언을 서사적으로 근사하려는 하나의 시도라는 것이다.

세 이론을 겹쳐 놓으면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불완전한 증언과 침묵의 자리를 채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소설이 복원한 목소리들은 5.18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바흐친은 다성성을 통해 단일 서사의 권위를 해체하려 했지만, 그 다성성 자체도 선택의 산물이다. 푸코는 대항적 지식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대항 서사 역시 권력관계 바깥에 있지 않다. 아감벤은 증언의 불가능성을 직시하게 하지만, 그 불가능성이 곧 침묵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세 이론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소설의 한계를 가리키면서도, 바로 그 지점에서 소설의 필요성을 동시에 긍정한다.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소설을 무력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의식하며 쓰인 소설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증언의 형식일 수 있다. 『소년이 온다』는 단일한 진실을 선언하는 대신, 여러 목소리가 교차하는 자리를 만들어 독자를 그 안으로 불러들인다. 소설이 제공하는 것은 완결된 역사가 아니라, 5.18을 지금 이 순간 계속 질문하도록 만드는 윤리적 요청이다.

활동 결과

‘소설의 다성 구조가 5.18의 역사적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는가’라는 질문은, 토론과 이론적 분석을 거치며, 우리가 도달한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 침묵을 채우는 모든 언어는 이미 어떤 선택을 내포하며, 그 선택은 무엇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을 가린다. 소설이 공식 서사에 맞선 대항적 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천이 갖는 선택의 정치학을 함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팀원 모두가 공감했다.

우리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감각적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그 텍스트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배치하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설이 복원한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과, 그 복원의 방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문학 텍스트를 사회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임을 공유하며 3회차 활동을 마쳤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4. 27. (월). 18:00-20:00			장소	****학과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
	출판사	창비	출판연도	2014. 05. 1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파괴된 생애, 전이된 고통 - 구조적 폭력의 시간성 (2) : 생애를 파괴하는 잔혹한 폭력은 종결될 수 있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3회차 활동에서 소설의 서술 전략과 역사적 복잡성을 살펴본 후, 4회차 활동에서는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파괴하며 그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이되는지에 대해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사전에 발제문을 공유하고 핵심 논제에 대한 의견을 각자 정리해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애도와 멜랑콜리아' 개념을 소설에 적용하며 이론적 분석을 병행했다.</p> <p>2. 발제문 의견 공유</p> <p>① 논제 1. 5.18의 잔혹한 폭력은 구조의 산물인가, 개인의 책임인가.</p> <p>-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을 향한 집단 구타, 조준사격, 성폭력 등을 자행했다. 이를 '악의 평범성'의 관점에서 읽으면, 가해자들은 명령 체계 안에서 사유를 멈춘 평범한 개인이며 폭력의 본질적 책임은 그 명령 체계를 설계한 구조에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어디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가. 5.18 가해자들이 수십 년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구조적 책임론의 귀결되는가, 아니면 구조적 책임이 오히려 개인의 면죄부로 적용된 결과인가.</p> <p>한*민 : 무조건 개인의 면죄부로 적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군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명령 체계에 속해야 했던 경험이 없기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명령 체계에 속해야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망가트리고,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이니까.'라는 합리화 아래에서 더 잔혹하고, 유희처럼 비무장 시민을 다루지 않았는가. 아무리 명령 체계 속에 있었다. 한들, 이 정도까지의 방</p>						

식일 순 없다. 그 방식이 이렇게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일 필요는 없다. 동일한 선상에 놓인 동일한 종족이 어떻게 권력 구조에 속했단 이유로 마치 한낱 하찮은 생명을 짓밟듯 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결국 구조적 책임이 개인의 면죄부가 된 것뿐이다.

고*연 : 5·18의 잔혹한 폭력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악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군인들은 계엄 체계와 명령 구조 속에서 움직였고, 국가 권력은 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조 속에 있었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양심을 저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5·18의 폭력은 구조가 만든 비극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행동한 개인들의 책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구조적 산물이라는 것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서로 소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두 논리는 번번이 후자가 전자의 면죄부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5.18 계엄군의 폭력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틀이다. 계엄군 개개인이 특별히 잔인한 악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고, 그 명령 체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이를 목인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공모였다. 폭력의 본질적 책임을 구조에서 찾는 이 시각은, 5.18을 일부 군인들의 일탈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18 핵심 가해자들은 수십 년간 처벌받지 않았다. 전두환은 부족함 없이 살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사망했고, 끝까지 광주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구조적 책임이라는 언어는 결과적으로 개인을 위한 방패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구조적 설명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소거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사형을 지지했다. 구조가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실제 방아쇠를 당긴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유를 멈추고 명령에 복종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적으로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작업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5.18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진 : 5·18 당시 가해자들이 수십 년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은 구조적 책임론이 오히려 개인의 면죄부로 이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이 살기 위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무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 체계의 강압성이 폭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사유를 멈추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이상, 그 행동에 따르는 책임 또한 반드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령에 따른 구조적 산물'로만 치부하는 것은 비극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구조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린 개인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정*채 : 5·18의 폭력은 구조의 산물이다. 계엄군 개개인은 신군부가 설계한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고, 그 체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권력을 장악한 소수와 이를 목인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공모였다. 거대한 폭력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사유를 멈추고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개인에 의해 작동한다. 절대적 위계질서 안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를 묻는다면 구조가 개인의 선택지를 극도로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구조가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그 행위의 도덕적 무게가 사라지는 않는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구조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구조의 문제를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지우는 것도 모두 불완전하다. 폭력을 설계하고 명령한 구조에 더 큰 책임이 있으나, 그것이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논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② 논제 2.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개인의 감정인가,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인가.

- 은숙과 선주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다. 이 죄책감을 순수하게 개인 내면의 산물로 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폭도의 편’으로 낙인찍히며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던 사회적 조건이 이 감정을 구성하고 강화한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와 죄책감을 개인 심리의 문제로 읽는 것과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로 읽은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민 :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개인적 감정일까,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일까. 이 질문을 읊조려보면서 꽤 오래 고민했던 것 같다. 함께 고생하고, 같이 아파했기에 다가오는 내일을 공통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얻게 되었을 때, 그 죄책감은 개인적 감정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라는 것이 더 옳은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를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로 읽으면 피해자의 감정은 개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기보다도 사회가 부여한 시선과 폭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폭도”,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은 외부의 낙인이 계속 반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선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된다. 실제 잘못이 없음에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문제는 사회 구조에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느껴진다.

고*연 : 살아남은 인물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과 슬픔은 개인 내부에서 생겨나는 감정일 수 있지만 당시 사회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폭도’라는 왜곡된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들에게 침묵과 수치심을 강요했고, 결국 죄책감 또한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존자들의 죄책감은 개인 심리의 문제이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원 : 사회적 낙인은 내면화이자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은숙과 선주는 피해자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이다. 상실한 대상에 대한 분노가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자아를 향한 가지 비난으로 전환되는 것. 이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아는 텅 비고 황폐해지며,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우리는 그 전환이 왜 일어났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다. 1977년까지 이들은 ‘폭도의 편’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위험이었던 조건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언어화할 수 없었다. 발화되지 못한 그 고통은 내면으로 침잠된다. 그리고 그 침잠이 오래도록 반복되면, 외부의 낙인은 결국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그들의 죄책감은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든 생각은 이 낙인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1997년 이후에도 그 내면화된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도가 피해자를 복권시켰다고 해서, 수십 년간 내면에 새겨진 수치심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이 폭력의 시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 :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개인의 내면적 감정과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감정적 부채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부의 시선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폭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낼 때, 살아남은 이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주기보다는 억울함이나 분노와 같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정작 본인은 그날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씌운 잘못된 프레임에 동조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무지에 대한 고립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독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같은 현장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지만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함께 싸우고 견뎠던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 생존했다는 데서 오는 본능적인 미안함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겪은 비극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타인의 차가운 시선까지 더해지며 그 죄책감이 더욱 강화되고 고립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채 : 등장인물이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순수하게 개인 내면의 산물로만 볼 수는 없다. 이 감정들은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조건들이다. 수십 년간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던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로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다. 애도가 차단된 조건에서 상실에 대한 분노는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자아를 향한 자기 비난으로 전환된다. 이들의 죄책감은 이 구조적 조건이 심리 내부로 침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전적으로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만 읽는 것은 불완전하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했을 감정이다. 이러한 감각은 사회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자와 맺는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감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본질적 감정 위에 사회적 낙인이 덧씌워지면서 그것이 몇 배로 증폭되고 고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존자의 죄책감은 개인의 감정인 동시에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이다. 이 둘은 분리해서 바라보기보다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심화시켰는가를 함께 묻는 것이 더 정확하다.

③ 논제 3. 애도하지 못한 세대의 고통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 소설 속 생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발화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발화되지 못한 것, 애도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가.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 소설을 읽으며 갖게 되는 감각은 전이된 트라우마인가, 서사를 통해 구성된 공감인가.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민 : 5.18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가 책을 읽으며 갖게 되는 감각은 전이된 트라우마인지, 서사를 통해 구성된 공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말을 반복적으로 곱씹으며 '전이된 트라우마'보다 '구성된 공감'이라는 말을 더 깊게 느꼈고, 그렇기를 소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이된 트라우마는 중심된 감정이 마치 고통처럼 느껴진다. 고통과 아픔을 물려받고 또 그 감정을 세습, 답습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구성된 공감은 마치 아픔을 덜고 교훈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듯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여감의 차이라고 단순히 넘겨버릴 수도 있으나 원인이 뭐든 다음 세대에게 공감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애도하지 못한 세대의 고통을 문학적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반듯하게, 모나지 않게, 공감적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고*연 : 애도 되지 못한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다른 형태로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소설 속 생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말하거나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말해지지 못한 기억과 감정은 가족, 사회,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독자들도 소설을 읽으며 당시의 공포와 슬픔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의 계승이라고 생각한다.

김*원 : 이 논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화되지 못한 고통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감각은 전이된 트라우마인가. 감정적 공명에 의한

공감인가.

먼저 고통이 어떻게 전이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발화되지 못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침묵들은 내면으로 침잠된 채 삶 전체를 잠식한다. 말해지지 못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부재의 형태로 전달된다. 어떤 날짜가 이유 없이 무겁게 흘러가고, 어떤 이름이 가족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지며, 어떤 주제에서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지. 다음 세대는 그 공백을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발화되지 못한 고통은 언어로, 몸으로, 관계와 감정으로 조용히 전이된다.

그렇다면 그 전이 바깥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 공감은 서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소설이 동호의 죽음, 은숙의 침묵, 어머니의 억눌린 애도를 재현할 때, 독자는 감각적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경험은 책을 덮는 순간 종결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종결을 독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전이된 트라우마는 그 종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삶에 새겨진다. 애도가 차단된 조건 속에서 고착된 멜랑콜리아가 세대를 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받아안은 쪽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이 소설을 읽은 나의 감각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내가 경험한 것이 서사적으로 구성된 공감에 가깝다면, 그 공감이 책을 덮은 이후 어디로 가는가를 의식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이된 트라우마와 서사적 공감의 구분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서사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피해자의 고통을 동일시하는 것은 또 다른 전유이자 그 고통을 흐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0년 광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고통이 왜 발생했는가를 구조적으로 묻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집합적 실천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진 :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감정은 '전이된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서사를 통한 공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전이된 트라우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의 실제적인 깊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전이된 트라우마'는 단순히 슬픈 감정을 넘어, 그 사건을 나의 일로 완전히 가져와서 느끼는 압도적인 고통이다.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다가도 화가 나고, 그 기억이 일상을 지배할 만큼 강렬한 심리적 상흔이 옮겨온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를 배우며 한일전 같은 사안에 국민 대다수가 극도로 몰입하고, 보지 못한 과거의 일임에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이러한 전이된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서사를 통한 공감'은 소설 속 인물들의 삶과 문장을 차분히 따라가며 그들이 느꼈을 감정의 결을 이해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건을 나의 직접적인 현실로 끌고 와서 똑같은 수준의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비록 그날의 비극이 내 일상의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더라도, 서사를 통해 전달된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 도달하는 건강한 공감의 형태라고 본다. 이러한 공감이 있기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올바르게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정*채 :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 소설을 읽으며 갖게 되는 감각은 트라우마와 서사적 공감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서사적 공감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소설의 진행 방식과 요소들은 독자를 사건의 내부로 끌어들이며 40년 전 사건을 현재 순간의 일로 감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사가 구성한 감각이다. 독자는 책을 덮으면 그 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직접 경험한 자의 고통과 서사를 통해 구성된 감각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감각이 단순한

공감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발화되지 못한 것과 애도 되지 않은 것은 침묵의 형태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서사적 공감을 넘어 트라우마의 전이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으며 갖게 되는 감각은 서사적 공감이면서 동시에 트라우마의 전이일 수 있다. 우리는 이 감각을 단순한 문학적 체험으로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지워진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사회학적 분석

한나 아렌트 - 악의 평범성과 구조적 공모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소설에 적용해 군인들의 폭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소설에서 계엄군의 폭력은 특정 악인의 행위로 그려지지 않으며, 소설이 가해자의 내면을 서술하지 않는 선택은 아렌트의 통찰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계엄군 개개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고, 그 명령 체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이를 목인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공모였다. 수백 명의 죽음은 특별히 잔인한 개인이 아니라, 사유를 멈추고 명령에 복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적 행위로 가능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구조적 공모의 논리가 가해자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희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5.18 가해자들이 수십 년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이 구조적 책임론의 귀결인지, 아니면 구조적 책임이 오히려 개인의 면죄부로 작동한 결과인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조적 책임론과 개인 책임론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발생과 지속에서 각각 다른 층위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 애도와 멜랑콜리아

프로이트의 '애도와 멜랑콜리아' 개념을 통해 소설 속 생존자들의 삶을 분석했다. 은숙은 수십 년이 지나도 5월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주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상실을 공식적으로 애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삶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로 설명할 수 있다. 상실을 '끝내지' 못하고 그 상실을 자아 안으로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멜랑콜리아는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 피해자에게 강제한 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가가 피해자를 '폭도'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애도의 공간을 차단한 조건에서, 애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강제되었다. 프로이트의 임상적 개념이 소설 속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나아가 이 애도 불가능성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도 논의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소설을 읽으며 갖게 되는 감각이 전이된 트라우마 인지 서사를 통해 구성된 공감인지,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결 : 폭력의 구조와 개인의 고통

토론을 마무리하며 각 이론이 어떻게 구조적 폭력과 그 속의 개인을 설명하는지 정리했다. 아렌트는 폭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 사유를 멈춘 평범한 개인들이 복종과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공모가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 폭력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설명한다. 국가가 애도의 공간마저 차단한 조건 속에서 상실은 자아를 잠식하고 멜랑콜리아로 고착된다. 구조적 공모는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 폭력은 피해자의 생애를 폭력 당시에 묶어두며, 국가는 애도마저 차단 함으로써 그 고착을 영속화한다.

구조는 폭력의 발생을 설명하지만, 그 폭력이 남긴 고통은 언제나 개인의 몸과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은숙과 선주, 동호 어머니의 억눌린 애도는 구조적 분석의 언어로 완전히 포괄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의 언어로 완전히 포괄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이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분석이 개인의 고통을 구조의 증거로만 환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확인했다.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구조적 폭력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생애 안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지속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적 조건의 산물로 읽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언제나 구체적인 개인의 몸과 삶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따라된 생애, 전이된 고통 - 구조적 폭력의 시간성 (2)

- 2026. 04. 27. 『소년이 온다』 독후 활동 -

I. 폭력은 종결될 수 있는가?

1980년 5월 27일 도청 폭력으로 5.18은 '사건'으로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소년이 온다』가 보여주는 것은 폭력이 그날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온숙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입장을 회복하지 못해서 온숙은 전이된 것은 잘못 할까? 못한 채 살아간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끝내 애도하지 못한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리고 그 파괴는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가.

II. 소설 속 인물들의 생애, 폭력이 남긴 것들

i. 온숙 - 끝나지 않은 연부의 고통

온숙은 5.18 당시 도청 앞에서 활동했던 생존자이다.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재,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설은 그녀의 현재를 통해 생존 자체가 어떤 무게를 수반하는지 드러낸다. 살아남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항렬처럼 작용하는 줄, 온숙의 생애는 5.18이 198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생존자의 몸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 선주 - 말할 수 없는 것의 무게

선주는 5.18 당시 구공직에 근무를 당한 인물이다. 소설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오랫동안 침묵 속에 봉인한 채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폭도'로 낙인찍힌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적 억압의 산물이다. 선주의 생애는 온숙과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재현한다.

iii. 동호의 어머니 - 애도하지 못한 삶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하지 못했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민중화공을 희생자'가 아닌 '폭도'로 규정된 시대를 살아야 했고, 그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을 강요당했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억압된 애도가 번외로 터져 나오는 순간으로도 볼 수 있다.

III. 구조적 폭력과 세대 전이

소설 속 인물들의 생애는 개인의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다. 아렌트와 프록토르의 이론은 이 현상을 각각 다른 층위에서 조명한다.

1. Hanna Arendt - 악의 범법성과 구조적 공포

아렌트는 나치 친위 아이비만의 체제를 비판하며 총체적인 절망에 도달했다. 수백만 명의 학살을 지휘한 인물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이념적으로 광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범법한 관료'였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으로 설명한다. 거대한 폭력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시용을 포기한 평범한 사람들의 복종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소년이 온다』에서 계몽주의 폭력은 독재 악인의 행위고 그러하지 않는다. 소설이 피해자의 내면을 다뤄서 없애 버린 것은 아렌트의 통찰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계몽과 계몽은 명령 체계 안에서 출몰하고, 그 명령 체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공부의 권위 장악과 이를 뜻했던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공포였다. 이는 5.18의 폭력을 개인의 잔혹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구조적 공포는 논리나 개념이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희석시키는가.

ii. Zigmund Freud - 애도와 멜랑콜리아

프로이트는 1917년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상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구분했다. 정상적인 애도는 상실한 대상을 점차 내어놓는 과정이다.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세계의 관계를 맺는다. 반면 멜랑콜리아는 상실을 내어놓지 못하고 상실된 대상을 자아 안으로 끌어들이 내면화한 것이다. 애도가 상실을 외부 세계에서 처리한 다면, 멜랑콜리아는 상실을 자아 안으로 가져와 자아 자체를 잠식한다. 멜랑콜리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상실의 대상에 대한 분노가 자아를 향한 자기 비난으로 전환된다. 그 결과 자아는 병 되고 황폐해지며,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소설 속 생존자들의 삶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로 설명할 수 있다. 온숙은 수십 년이 지나도 5월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주는 자신이 경험한 것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상실을 공식적으로 애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상실을 '내재'하지 못하고 상실을 자아 안으로 끌어안은 채 살아간다.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는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들이 애도를 완결하지 못한 것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폭도'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애도의 공간 자체를 차단한 조건에서, 애도는 자용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강제된다. 프로이트의 임상적 개념이 소설 속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소설 속 인물들의 멜랑콜리아는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 피해자에게 강제한 조건이다.

iii. 구조와 내면 사이에서

아렌트와 프로이트의 이론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5.18을 이해하도록 한다. 아렌트는 폭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 평범한 개인이 시용을 멈추고 명령에 복종할 때, 구조적

폭력은 작동한다. 프로이트는 그 폭력이 피해자의 내면에 무엇을 남기는지를 설명한다. 애도가 차단된 조건에서 상실을 자아를 안착하는 멜랑콜리아로 고착된다. 두 이론을 연결하면 하나의 시선이 형성된다: 구조적 공포는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 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폭력 당자로 고착시키며, 국가는 '폭도'의 공명에서 차단함으로써 그 고통을 영속화한다.

IV. 핵심 논제

논제 1. 5.18의 잔혹한 폭력은 구조의 산물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계몽론은 비유정 시민을 위한 집단 구제, 조준사, 심적 등을 지향했다. 이를 '악의 평범성'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은 명령 체계 안에서 시용을 받은 평범한 개인이며 폭력의 본질적 책임은 그 명령 체계를 설계한 구조에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어디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가. 5.18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사회적 발언이 없는 한살을 구조적 책임론의 귀결인가, 아니면 구조적 책임이 오히려 개인의 연리부로 작용한 결과인가.

논제 2.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은 개인의 감정인가,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인가.

온숙과 선주는 자신이 피해자일지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다. 이 죄책감을 순순하게 개인 내면의 산물로 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폭도'의 편으로 낙인찍히며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던 사회적 조건이 이 고통을 구성하고 강화한 것은 아닌가. 피해자가 온숙과 선주와 피해자를 겪은 심리의 문제로 보는 것과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로 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논제 3. 애도하지 못한 세대의 고통은 다음 세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소설 속 생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말하지 못한 것, 애도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가.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 소설을 읽으며 갖게 되는 것은 전이된 트라우마인가, 서사를 통해 구한 동공인가.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체 사진]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5. 04. (월). 18:00-20:00			장소	****학과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은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작별하지 않는다			저자	한강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1. 09. 0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파편적 기억, 연대와 치유,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애도 (1) : 파편적 기억은 어떻게 애도의 언어가 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의 장편소설로, 제주 4.3의 역사적 비극을 개인의 삶과 기억을 통해 파편적이고 감각적인 서술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우리는 소설이 역사를 어떤 형식으로 말하는지, 그 방식이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탐구하고 싶었다. 각자 소설을 읽고 독후 소감문을 작성해 온 뒤,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논제별 토론을 진행하고, 소설의 파편적 서술 전략과 기억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p> <p>2. 독후 소감 나누기</p> <p>한*민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냥 제주 4.3을 소개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그 비극이 한 개인의 삶과 감정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매우 섬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외운다는 느낌보다 한 사람의 생애를 깊게 둘러보는 느낌을 받았다. 인물들이 느끼는 공포와 상실은 마치 나도 함께 여실히 느끼도록 공유받는 듯했다.</p> <p>물론 읽기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파편적인 서술과 반복되는 이미지 서술이 내용을 따라가기 벅차게 만들기도 했고 무거운 분위기와 어두운 사건들에 마음이 턱턱 막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방식 덕분에 등장인물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처럼 이 일을 풀어냈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생생히 느낄 수는 없었을 것 같다.</p> <p>책을 읽고, 역사적 비극은 단순히 개인이 겪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현실임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누군가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려는 태도를</p>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애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사건의 제 3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여러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만드는 소설이었다.

고*연 :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억과 고통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제주 4·3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억을 이어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갔다. 특히 경하가 인선의 고통에 공감하고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인선에게 향하는 모습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소설의 서술 방식은 사건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인물들의 혼란과 슬픔을 직접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읽을수록 인물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방식이 오히려 비극의 아픔을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느꼈다.

이 책을 통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과 기억의 이어짐이 결국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위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느꼈다.

김*원 :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태. 소설은 4.3을 설명하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도, 가해자도, 날짜도, 숫자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처음엔 그것이 낯설었다. 역사를 다루면서 왜 역사를 직접 말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소설이 역사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역사가 실제 살아남은 방식으로, 즉 말해질 수 없는 것의 형태로 충실히 역사를 말하고 있었다. 소설은 설명 대신 감각으로 역사를 전달한다. 나는 소설로부터 4.3에 대한 그 어떤 직접적인 설명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설을 읽는 내내 무언가 무겁고 오래된 것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경하가 눈보라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는 장면에서 오래 멈췄다. 처음에는 그냥 진득한 우정처럼 보였으나, 책을 덮으며 생각해보니 경하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선의 고통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3이 인선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그 구조적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든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 발걸음이 가능했던 것 같다. 경하의 응답은 어쩌면 사적 선택임과 동시에 역사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소설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4.3을 문학을 통해 처음 감각적으로 마주하는 세대로서, 그 감각이 책을 덮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를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윤리적 태도라는 것을 어렵듯이 배울 수 있는 소설이었다.

이*진 :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제주 4·3은 안타깝게도 대중적으로 그리 유명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역사이다. 책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처럼 세상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비극을 결코 이대로 묻어두거나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처럼 다가온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채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더욱 특별하다.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역사적 비극에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끊어지고 부서진 ‘파편적 서술’을 통해 고통의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독자가 그 아픔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잊지 못하게 만들려는 문학적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비극과 완전히 ‘작별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비록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사건을 알게 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 자체가 치유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소외되었던 역사를 우리의 기억 속

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정*채 :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내게 읽기 어려운 소설이었다. 한강 특유의 문체는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눈, 새, 나무 같은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며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 난해함이 불친절하게 느껴졌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읽어갈수록 그 난해함이 소설의 실패가 아니라 의도임을 알게 되었다. 4.3은 수십 년간 말해질 수 없었던 역사다. 그 역사는 선형적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순간 오히려 고통의 질감이 희석된다. 파편적 이미지들이 독자에게 가하는 혼란과 충격은 직접 서술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와 독자를 충돌시킨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내가 아직 그 파편을 받아낼 맥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문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은 말해질 수 없었던 것을 감각으로 전달하고, 독자를 역사의 증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그 증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소설 바깥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문학의 역할과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소설을 읽은 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3. 발제문 공유

① **논제 1. 파편적 서술은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직접 서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 전달하고 무엇을 잃는가.**

- 파편적 이미지는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감각적 충격으로 독자를 역사와 충돌시킨다. 그러나 이 방식이 독자를 4.3의 진실에 더욱 다가서게 만드는지는 열린 질문이다. 직접 서술이 할 수 있는 것과 파편적 이미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파편적 서술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한*민 : 파편적 서술은 사건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 이미지와 감각, 침묵과 단절된 기억들을 통해 독자가 4.3의 비극을 체험하도록 만든다. 작품 속 눈보라, 얼어붙은 풍경, 죽은 새와 같은 이미지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폭력과 상실의 감각을 전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직접 서술은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사건의 맥락과 구조, 발생 원인 등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는 있으나 여러 사건에 의한 감정적 잔여나 추상적인 가치까지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파편적 서술은 고통의 정서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고*연 : 독자가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직접 서술에 비해서 사건을 명확하고 선형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독자가 사건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체험하는 것 같다.

김*원 : 파편적 서술은 독자에게 사건을 "이해"시키는 대신 "체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눈, 새, 나무 같은 상징물들은 4.3의 전말을 설명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인간의 몸과 기억 속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독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풍경과 죽은 새의 이미지를 통해 역사의 공포와 상실을 직접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파편적 서술은 독자를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고통의 체험자로 끌어들인다.

파편적 서술이 직접 서술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고통의 질감이다. 4.3은 수십 년간 국가에 의해 봉인된 사건이었고, 생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 침묵과 상처는 다음 세대에게 선형적 서사가 아니라 감각적 공포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소설이 선택한 파편화된 형식은 역사가 실제로 전해진 방식, 즉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단절된 기억의 방식에 가장 충실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소설이 4.3을 선형적 언

어로 정리했다면, 고통의 질감은 역설적으로 희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편적 서술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 역사적 맥락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 서술이라면 4·3이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독자에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파편적 서술이 독자에게 감각적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충격이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파편적 서술은 고통을 전달하는 데 탁월하지만, 그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묻는 언어를 독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진 : 직접 서술은 사건을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에 파편적 서술은 사건을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큰 울림과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파편적인 이미지 중심이다 보니 직접 서술에 비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놓칠 수 있다.

정*재 : 파편적 서술은 직접 서술이 닿을 수 없는 지점에 닿을 수 있다. 4.3처럼 수십 년간 말해질 수 없었던 역사는 선형적 서사로 정리되는 순간 그 고통의 질감이 희석될 수 있다. 소설 속 눈, 새, 나무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감각적 충격으로 독자와 역사를 충돌시킨다. 이 충격은 직접 서술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자를 4.3에 닿게 만든다. 그러나 파편적 서술은 그것을 받아낼 독자에게 혼란을 심어줄 수 있다.

② **논제 2. 소설은 기억의 전이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이 인선의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치유를 향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 인선에게 4.3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구조화하는 상처로 작동한다. 이 전이된 기억은 인선을 4.3과 연결하는 연대의 고리인 동시에, 해소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반복이기도 하다. 전이된 기억으로 구조화된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는가.

한*민 : 소설에서는 기억의 전이를 다음 세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부모 세대의 침묵과 상처 속에서 그 기억을 후세대가 물려받는다. 단순한 텍스트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의 트라우마로까지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이된 상처의 감각은 삶의 방식에도 개입한다. 이런 구조화의 방식이 인선의 삶을 치유하는 데에 열려있는 여부를 따져보면 우선 작품에서는 완전한 치유를 쉽게 제시하지 않는다. 인물들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도 소멸될 수 없다.

하지만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려는 태도를 통해 최소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나누고, 증언하는 행위가 치유의 시작에 함께하고 있다.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기억을 공유하고 애도하는 과정 자체를 치유의 가능성으로 보여주기에 열려있다고 판단한다.

고*연 : 정신이 겪은 비극을 그 딸인 인선이 이어받고, 인선이 받은 상처와 그 흔적은 경하에게로 이어진다. 전이된 기억이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전이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인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과정 속에서 비극에 대한 애도와 위로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소설은 기억의 전이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기억을 함께 끌어안으려 할 때 치유의 가능성 또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은 기억의 전이를 세대를 관통하는 상처의 연쇄로 그린다. 정심이 4·3을 직접 경험하며 겪은 비극은 그 딸인 인선에게로 이어지고, 인선의 고통은 다시 경하에게로 전달된다.

이 전이된 기억이 인선의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치유를 향해 열려있는가? 나는 완전한 치유를 향해 열려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완전한 회복을 쉽게 제시하지 않는다. 인선의 고통은 소설 내내 지속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소멸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전이된 트라우마는 인선의 삶을

달린 구조 안에 가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려는 태도 속에서 최소한의 치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다. 인선이 새를 살리려 하고 경하가 그 곁에 함께하는 장면은, 기억을 공유하고 증언하는 행위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라우마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나눌 때, 전이된 기억은 단순한 반복적 고통에서 벗어나 애도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기억을 공유하고 애도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인선의 삶은 완전히 열려있지도, 완전히 닫혀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진 :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과 관심이 딱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서사적 위안에 그칠 위험이 있다. 마음의 위로를 넘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제도적 보상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치유 조건이 성립된다고 본다.

정*채 : 문학이 수행하는 트라우마 인정은 실질적 치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며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알렉산더가 말하듯 트라우마가 공동체의 것이 되려면 그 고통이 집합적으로 서술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소설은 바로 이 과정을 문학 안에서 실천한다는 점이 치유의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안에서의 인정이 곧바로 사회적 혹은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③ **논제 3. 경하가 눈보라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는 행위, 새를 함께 살리려는 행위는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경하의 응답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 유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응답의 대상이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산물인 인선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이 사적 행위는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된다. 두 사람의 애도가 공동체의 애도로 확장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한*민 : 경하가 눈보라를 뚫고 인선에게 향하는 행위는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공감하려는 윤리적 선택이며, 침묵 속에서 남겨진 상처를 외면하거나 묵인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진다. 또한 새를 살리려는 행위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데, 새는 연약한 생명인 동시에 죽음 직전의 존재를 떠올리게 만든다. 새를 살리려는 장면은 잊혀지고 사라지려는 존재들을 기억하려는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즉, 4.3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하려는 의지를 투영한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고, 곁에 남으려는 자세 자체를 강조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애도가 공동체의 애도로 확장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전체가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애도, 그리고 올바른 역사적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슬픔이 공동체의 기억이 될 때 비로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연 : 경하가 인선에게 향하는 것은 인선의 고통과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새는 소설 속에서 희생된 존재들을 말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경하가 인선에게 향하고 새를 살리려는 것은 비극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희생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외면하지 않으려는 연대와 위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김*원 : 경하와 인선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두 개인 사이의 사적 유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관계가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역사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응답은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얼굴이 던지는 윤리적 호소는 경하가 왜 합리적 판단을 넘어 눈보라 속 제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응답이 개인의 고통을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하가 인선에게 응답한 것은 단순히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4.3이 만들어낸 상처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선행되어야 사적 응답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이 과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독자를 인선과 경하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독자 자신이 응답의 주체가 되도록 만든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이 연대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연대의 가능성이지 완성된 연대는 아니다. 그 가능성을 실제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은 책을 덮은 이후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진 : 경하가 위험을 무릅쓰고 인선에게 향하는 행위는 깊은 유대와 피해자와의 연대를 보여준다. 소설 속 인선과 새, 그리고 경하는 모두 성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등 고통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서로가 가진 아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은 채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정*재 : 등장인물 경하가 눈보라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고 함께 그 새를 살리려는 행위는 표면적으로 사적 유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응답의 대상이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사적 행위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이다. 국가가 애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죽음들을 향해 애도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그 죽음들을 공적 현실로 복원하려는 실천이다.

경하가 인선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은 인선을 통해 4.3의 죽음들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사적 연대는 이미 사회적 애도의 언어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행위만으로 공동체의 애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는 순간들이 쌓일 경우, 그것이 공동체의 애도로 확장될 수는 있다. 소설은 사회적 애도가 단순 제도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응답하는 개인들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회학적 분석

발터 벤야민 - 역사의 파편과 성좌

벤야민은 역사의 진실이 망각된 자들의 파편 속에 있다고 보았다. 역사가의 임무는 이 파편들을 '성좌'처럼 배열해 섬광처럼 과거의 진실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며, 이를 '변증법적 이미지'라 불렀다. 소설 속 눈·새·나무는 4.3이라는 역사의 파편이 결정화된 변증법적 이미지로 읽힌다. 소설은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로 충격을 가하며, 독자는 개념이 아니라 감각으로 4.3을 마주하게 된다.

마리안느 허쉬 - 포스트메모리

허쉬는 직접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부모나 공동체의 트라우마적 서사에 압도되어 그것을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내면화하는 현상을 '포스트메모리'라고 불렀다. 인선에게 4.3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지만, 어머니의 몸과 침묵을 통해 전이된 트라우마로서 그녀의 삶 전체를 구조화한다. 경하는 다시 인선의 고통을 통해 4.3에 닿는다. 소설이 독자에게 가하는 혼란과 충격은 바로 이 포스트메모리의 구조를 독자 스스로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 - 애도 가능한 삶

버틀러는 누구의 죽음이 애도 받는지 묻는다. 국가와 미디어는 특정 죽음을 공적으로 애도할 만한 것으로 구성하고, 다른 죽음은 통계나 부수적인 손실로 처리한다. 이 구분이 '애도 가능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눈다. 4.3의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폭도’로 규정되어 공식적인 애도의 공간이 차단된 채 ‘애도 불가능한 삶’에 속해 있었다. 소설이 인선과 경하의 행위를 통해 이 죽음들을 현재로 소환하는 것은 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삶들을 애도 가능한 것으로 되돌리려는 서사적 실천이다. 그러나 이 애도가 공적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독자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결 : 불가능했던 시간을 넘어 진정한 애도를 위해

벤야민은 ‘왜 이런 방식으로 쓰였는가’를, 허쉬는 ‘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토록 압도되는가’에 대해, 버틀러는 ‘이 서술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수행하는가’를 각각 설명한다. 우리는 소설이 4.3의 죽음들을 애도 가능한 것으로 복원할 때, 그 애도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사회적 언어로 확장되는가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각 개인이 일상적인 실천을 위해 해소해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활동 결과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소설의 파편적 서술이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4.3이라는 역사가 전달되어 온 방식 자체를 문학으로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기억은 선형적으로 복원되지 않고, 이미지와 침묵의 형태도 다음 세대에게 전이된다. 또한 사적 유대처럼 보이는 개인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려면 독자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연대와 애도, 치유는 소설을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설을 덮은 이후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파편적 기억, 연대와 치유,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애도 (I)

- 2026. 05. 04. 『작별하지 않는다』 독후 활동 -

I. 파편적 기억은 어떻게 애도의 언어가 되는가?

한걸음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설에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려는 직접적 서사도 없다. 대신 장과 환상, 논과 새와 나무 같은 상징물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사건을 파편적으로 소환한다. 기억은 고통의 서사로 복원되지 않고, 구절당 새로 문맥 위에 걸린다.

4.3은 수십 년전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인인 사건이었다. 생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그 침묵은 다음 세대에겐 밀려지지 않는 상처로 전해졌다. 소설이 파편화된 언어를 선택한 것은, 이 역사가 애도에 친화적 언어로는 말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전해질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파편화된 기억은 애도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아니면 애도를 위한 사회적 매개로 작동하는가?

II. 파편적 기억과 상징물의 서사적 기능

1. 논, 새, 나무 - 역사의 결정적인 이미지

소설의 장치

논, 새, 나무는 소설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상징물들은 특정 사건을 상징하는 알레고리가 아니다. 이것은 인물이 직접 권여할 수 있는 4.3의 공포와 상상을 감각적으로 담겨내는 매개물이다. 논은 논과 새는 동시에 보존한다. 새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나무는 영속에 갇힌 것들의 시간을 지각으로 끌어올린다.

벤야민과 허쉬의 연대와 생화

벤야민은 역사를 승자의 편승적 서사로 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이 승자의 편애가 아니라 말간 자들의 피변 속에 있다고 보았다. 허쉬의 질문은 이 편향성을 일탈(consideration)계단 역행해 복수 승자에 상응할 과정의 진실을 어떻게 불러오는 것이다. 이를 벤야민은 ‘변증법적 이미지’라 불렀다. 이 이미지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고, 오직 감각의 충격으로만 전달된다.

소설 속 논, 새, 나무는 4.3이라는 역사의 파편이 결정적인 변증법적 이미지로 일한다. 소설은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로 충격을 가한다. 허쉬는 개념이 아니라 감각으로 4.3을 마주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벤야민의 말한 역사 서술의 방식이다.

II. 인선의 문과 경하의 환제 - 포스트메모리

소설의 장치

소설의 인선은 4.3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4.3을 직접 경험한 어머니의 물과 침묵으로부터 그 기억을 물려받는다. 이 기억은 서사의 밑거름이 되며 트라우마의 원천이다. 인선에겐 4.3은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 깊숙이 새겨진 상처로 기능한다. 경하는 다시 인선의 고통을 통해 4.3에 닿는다. 기억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 비선형적으로 이동한다.

마리안느 바리 - 포스트메모리

허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들을 연구하면서 ‘포스트메모리(postmemory)’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포스트메모리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부모나 공동체의 트라우마적 서사에 의해, 행동에 압도되어 그것을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대안하는 현상이다. 이 기억은 직접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을 대체하며, 그 서사의 장에서 주체와 다음 세대에겐 연결을 고착시키기 때문이다.

인선의 서사는 포스트메모리의 구조를 정확히 재현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묵에서 4.3을 읽고, 자신의 삶을 구조화한다. 허쉬의 개념으로 보면 이 소설이 왜 4.3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파편적 침묵이었던 포스트메모리가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III. 애도되지 못한 죽음 - 애도 가능한 삶

소설의 장치

4.3의 희생자들은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는 그들을 ‘행방이 불분명하고 추모를 금지했다. 소설은 이 죽음들이 공식 애도 매물에 놓여온 역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인선의 장치가 새를 살리려는 행위를 통해 영혼의 제스처를 반복한다. 살아있는 새를 살리는 것은 온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가 담겨 보존된다.

주디스 바틀러 - 애도 가능한 삶

바틀러는 누구의 죽음에 애도 받지 않는다고. 그는 애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주장한다. 국가와 미디어는 특정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할 만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른 죽음은 묻거나 놓아두어 순교로 처리한다. 이 규정된 ‘애도 가능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다. 애도 받지 못한 죽음은 공식 현실에서 지워지고, 그 지워짐은 두 번째 죽음이 된다.

4.3의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바틀러가 말한 ‘애도 불가능한 삶’에 속해 있었다. 소설이 인선과 경하의 행위를 통해 이 죽음을 환대로 소환하는 것은 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삶들을 애도 가능한 것으로 되돌리려는 서사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III. 파편, 또 다른 기억의 형식

벤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소설이 왜 4.3을 설명 대신 감각으로 전달하는지를 해명한다.

논, 새, 나무는 역사의 고통이 결정화된 파편이다. 이 파편들은 개념보다 강한 방식으로 독자를 역사의 총동시자다.

허쉬의 포스트메모리는 인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4.3에 왜 그토록 압도되는가를 설명한다. 트라우마는 직접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유과를 통해 반복된다. 파편적 기억의 침묵은 결말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고유한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바틀러의 애도 가능성 개념은 이 파편의 서사에 정치적 차이를 부각한다. 소설이 4.3의 죽음을 애도 가능한 것으로 복원할 때, 그 애도는 개인이 내면화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언어로 확장되어야, 파편은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편이 애도를 반영하려면, 그것을 받아내는 공동체의 실천이 필요하다 것이다.

IV. 핵심 논제

논제 1. 파편적 서술은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직접 서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 전달하고 무엇을 놓는가?

파편적 이미지는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감각적 충격으로 독자를 역사의 총동시자다. 그러나 이 방식이 독자를 초월적 경험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는 열린 질문이다. 직접 서술에 할 수 있는 것과 파편적 이미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파편적 서술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논제 2. 소설은 기억의 전이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이 인선의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치유를 통해 열려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인선에겐 4.3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구조화하는 상처로 작동한다. 이 전이된 기억은 인선을 4.3에 연결하는 연대의 고려인 동시에, 헤스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반복이기도 하다. 전이된 기억으로 구조화된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는가?

논제 3. 경하가 논과 새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는 행위, 새를 함께 살리려는 행위는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경하의 응답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 유대권 보인다. 그러나 그 응답의 대상이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산물인 인간인 공요라는 점에서 이 사적 행위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의 애도가 공동체적 애도로 확장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단체 사진]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5. 11. (월). 18:00-20:00			장소	10419 강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작별하지 않는다			저자	한강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21. 09. 0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파편적 기억, 연대와 치유,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애도 (2) : 치유와 연대의 조건, 사회적 애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5회차 활동에서 다룬 파편적 기억과 포스트메모리 논의를 이어받아 치유와 연대의 조건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지, 아니면 사회적·제도적 인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중심 질문으로 삼았다. 각자 6회차 발제문의 논제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작성해 온 뒤, 순서대로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레비나스·알렉산더·호네프의 이론을 통해 소설의 치유 서사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다.</p> <p>2. 발제문 공유</p> <p>① 논제 1.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은 어떻게 사회적 연대가 되는가.</p> <p>- 경하와 인선의 관계는 두 개인 사이의 사적 유대처럼 보인다. 레비나스의 응답 윤리는 이 유대의 윤리적 근거를 설명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경로는 설명하지 않는다. 개인의 응답이 집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가.</p> <p>한*민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은 모이기 시작하며 연대로 뻗어져 나간다. 소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가 되고, 개인의 응답이 집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고통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론화 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기억이 개인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역사로 인식될 때 연대의 기반이 형성된다. 또한 제도적 인정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적 사과, 교육과 기록 작업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애도는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을 이어가려는 공동체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고통을 타인의 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말했듯, 소설은 이러한</p>						

과정의 결말과 현실화를 단번에 끌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출발점을 제시해준다.

고*연 : 소설에서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인선 역시 4.3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경하도 그러하다. 하지만 경하는 인선의 기억과 고통을 공감한다. 한 사람의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기억에 응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사회적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원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가 되려면 응답이 개인의 고통을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경하가 인선에게 향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4.3이 만들어낸 상처 전체에 응답하는 것이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개인의 고통은 집합적으로 서술되고 공유될 때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인정받는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그렇다면, 소설이 개인적 차원에 머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하와 인선의 응답을 목격한 독자 각각이 새로운 응답의 주체가 되고, 그 응답들이 쌓일 때 호네트가 말하는 연대적 인정이 형성된다. 연대적 인정이 충분히 축적되면 그것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소설은 완성된 연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개인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구조를 독자에게 체험시킨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의 출발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진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유대가 하나둘씩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대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국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이는 계기가 마련된다. 4.3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사건은 결국 국가가 직접 행동하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채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은 그 자체로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타자의 고통 앞에서 응답하는 행위는 자아 중심적 합리성을 넘어선다. 등장인물 경하가 눈보라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는 것은 계산된 선택이 아니다. 타인이 던지는 윤리적 호소에 응답하는 행위이다. 이 응답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개인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것은 그 응답이 반복되고 공유될 때 가능해진다.

소설은 두 등장인물 사이의 유대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독자가 두 사람의 응답을 목격하는 순간, 그 응답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알렉산더의 문화적 트라우마 개념처럼 개인의 고통이 서사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소설 안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소설은 개인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하의 행위는 사적 유대인 동시에 사회적 애도의 실천이다. 공동체의 연대는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개인들의 실천이 쌓일 때 형성된다는 것을 소설은 보여준다.

② 논제 2. 문학이 수행하는 트라우마 인정을 실질적 치유 조건이 될 수 있는가.

- 알렉산더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공동체의 것이 되려면 사회적 서술과 공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만들며 이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소설 속 인정이 실제 사회,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치유의 실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가.

한*민 : 문학에서 보여지는 트라우마의 인정은 실질적인 치유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치유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치유의 조건이라고 와닿지는 않는다. 단순히 하나의 개인이, 문학을 집필하는 작가가 인정해주었다고 해서 치유의 완성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여러 제도가 따라주어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움직여야만 치유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소설 속 인정이 실제 사회,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치유의 실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서사적 위안에 그치는가. 이에 있어서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소설 속 인정이 결국 그걸로 그쳤을 때, 만일 나라면 극심한 허무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설이 나를 인정해주었고, 소설로 사람들이 움직였음에도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개인이 느낄 상실감과 감정적 허기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때문에 이것이 치유의 실천이나, 서사적 위안일 뿐이나 묻는다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덧붙여서는 오히려 더 허무할 수도, 속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연 : 사회,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소수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그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도록 한다면 소설 속 인정이 실제 사회,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김*원 : 문학이 수행하는 트라우마 인정은 치유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렉산더의 문화적 트라우마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의 트라우마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서술과 공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만들면서 이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4.3을 몰랐던 독자, 혹은 알면서도 감각적으로 닿지 못했던 독자가 소설을 통해 처음으로 그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인정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속 인정이 사회적·제도적 인정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책을 덮는 순간 감정적 공명은 발생하지만, 그것이 피해자 명예 회복이나 국가 사과 요구 같은 제도적 변화로 연결되는 경로는 소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소설이 기여하는 것은 주로 연대의 차원이며, 법적 인정과 제도적 회복은 여전히 사회 바깥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적 인정은 치유를 향한 출발점이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치유 자체를 완성하지는 못한다.

이*진 :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과 관심이 딱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서사적 위안에 그칠 위험이 있다. 마음의 위로를 넘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제도적 보상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치유 조건이 성립된다고 본다.

정*재 : 문학이 수행하는 트라우마 인정은 실질적 치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며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알렉산더가 말하듯 트라우마가 공동체의 것이 되려면 그 고통이 집합적으로 서술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소설은 바로 이 과정을 문학 안에서 실천한다는 점이 치유의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안에서의 인정이 곧바로 사회적 혹은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호네트가 말한 세 차원의 인정 중 문학이 수행하는 것은 연대적 인정에 가깝다. 독자가 4.3의 증인이 되는 것은 피해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차원은 문학이 담당할 수 없는 범주이다. 소설을 읽은 독자가 감동받더라도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치유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이 수행하는 인정은 서사적 위안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의 출발점이자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나 문학만으로 치유가 완성될 수는 없다. 소설이 닿는 자리와 소설이 닿지 못하는 자리를 동시에 인식할 때 문학의 역할과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

③ 논제 3.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생애가 치유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호네트의 세 차원의 인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치유가 완성되지 않는다. 4.3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회복된 인정과 여전히 부재한 인정은 무엇인가.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은 어느 차원에서 위치하며, 소설이 닿지 못하는 치유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민 :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생애가 치유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참 어려운 문제다. 4.3의 피해자들은 국가 폭력

으로 인하여 권리와 사회적 존중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억울한 죽음과 침묵 강요 속에서 권리를 부정당하며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인 위치나 자리 또한 박탈당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공식 사과 등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은 삶의 상처와 낙인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는 단순한 법적 인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의 생애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인 제도와 여론, 공식적인 사과와 조사 등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공적인 차원 외의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볼게 된다. 그러한 외부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치료 행위들이 끝나치고 나면 결국 파괴된 생애를 개인이 치유하게 하는 것이 그 개인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일맥상통하듯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 치유의 조건은 사랑인 것 같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끝까지 아픔을 기억하려, 죽은 이들을 애도하려는 태도 말이다. 정치나 사회적 구조, 교육, 사회적 합의 혹은 책임의 영역은 소설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서로를 애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들도 함께한다면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삶이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고*연 : 어떠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잘못에 대한 피해자가 그 사과를 듣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도 아닌,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비난하거나 탓할, 피해자로 있음에 기억될 수 있는 기회들을, 보상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3사건은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그 상처가, 강요당한 침묵이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은 타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개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

김*원 : 호네트의 인정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4.3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된 인정과 여전히 부재한 인정이 공존한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의 정서적 인정은 소설에서 경하와 인선의 관계처럼 개인적 응답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연대 차원의 인정은 4.3 특별법 제정이나 추념일 지정 같은 제도적 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의 차원, 즉 권리 주체로서의 완전한 법적 인정과 배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남아 있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며, 가해 주체가 명확히 규명되는 것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은 주로 사랑과 연대의 차원에 위치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뒤 독자들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의 바깥,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요구되어야 하는 인정들을 함께 촉구하는 사회적 실천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일 것이다. 치유는 문학적 공감과 제도적 실천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이*진 :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목숨을 잃었으며, 그 주변 사람들까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이나 치유가 무엇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국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정적·정치적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나 지역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국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과거를 완벽히 되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으로서 반드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정*채 :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생애가 치유되려면 호네트가 말한 세 차원의 인정이 모두 회복되어야 한다. 4.3 피해자들은 사랑의 인정, 법적 인정, 연대적 인정 모두를 박탈당했다. 가족의 죽음과 강요된 침묵은 사랑의 인정을 파괴하고 수십 년간 소위 말하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채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연대적 인정 역시 부정되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치유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차원이 동시에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연대적 인정은 제도가 변하기 이전에도 시작될 수 있다.

소설이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등장인물 경하가 인선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은 모두 연대적 인정의 실천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이 쌓이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될 때 그것이 법적 인정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토대가 된다. 연대적 인정은 나머지 두 차원의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연대적 인정이 충분히 쌓일 때 그것은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공동체가 먼저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때 국가는 그 인정을 법과 제도로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4.3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로 법적 인정의 일부를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진상 규명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은 연대적 인정의 차원에 위치한다. 법적, 제도적 인정의 완성은 소설 바깥에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사회학적 분석

에마뉼엘 레비나스 - 타자의 얼굴

레비나스는 윤리의 출발점을 타자의 얼굴에서 찾았다. 타자의 얼굴은 단순한 물리적 얼굴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윤리적 호소이다. 그 호소 앞에 나는 피할 수 없으며, 이 응답의 의무가 모든 윤리와 연대의 토대다. 나아가 레비나스는 이 응답이 자아를 해체한다고 보았다. 타자를 위해 응답하는 순간, 나는 내 이익과 안위를 중심에 둔 자아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

경하가 인선의 고통이라는 윤리적 호소에 응답한다. 이 응답은 경하 자신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아 중심적 합리성을 넘어선 연대의 행위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윤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이 어떻게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 알렉산더와 호네트의 이론이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했다.

제프리 알렉산더 - 문화적 트라우마

알렉산더는 트라우마가 단순히 사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 공동체 전체의 트라우마로 인정받으려면, 그 고통이 집합적으로 서술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는 '트라우마 과정'이라고 불렀다. 피해자의 고통이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으로 편입될 때, 비로소 그 사건은 사회적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개인의 병이나 열등함으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4.3은 수십 년간 알렉산더가 말한 트라우마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국가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동체의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 거부가 트라우마를 개인의 침묵 속에 가뒀다. 소설이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서사 전략은, 이 트라우마 과정을 문학적 공간 안에서 수행하려는 시도로 읽혔다.

악셀 호네트 - 인정 투쟁

호네트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존엄이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인정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째, 사랑의 인정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 둘째, 법적 인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 셋째, 연대적 인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 이 세 차원 중 하나라도 박탈될 때, 인간은 자아를 손상당하고 존엄을 잃는다고 보았다. 호네트는 이 인정의 박탈에 맞서 싸우는 것이 사회적 투쟁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다.

4.3 피해자들은 세 차원의 인정을 모두 박탈당했다. 독자가 4.3의 증인이 되는 구조는 이 박탈된 인정을 서사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로 읽혔다. 그러나 소설이 수행하는 인정은 주로 연대적 인정의 차원에 가깝다. 연대적 인정은

나머지 두 차원의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연대적 인정이 충분히 쌓일 때 그것은 법적 인정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소결 : 치유는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된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세 이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다. 레비나스의 응답 윤리는 경하가 왜 인선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그 윤리적 토대를 밝힌다. 알렉산더의 문화적 트라우마는 이 응답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조건을 설명하며,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의 트라우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합적 서술과 공유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호네트의 인정 투쟁은 이 치유가 왜 단순한 감정적 위로로 끝날 수 없는지를 밝힌다.

박탈된 인정은 사랑·법·연대 세 차원 모두에서 회복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소설이 서사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연대적 인정의 차원에 해당하며, 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치유가 완성되려면 법적·제도적 차원의 인정이 소설 바깥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결과

『작별하지 않는다』의 두 번째 독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치유가 개인적 차원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세 이론을 통해 확인했다. 결국 소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번 활동의 핵심이었다. 문학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만들고 연대적 인정의 감각을 심어줄 수 있지만, 법적 인정과 제도적 회복은 소설 바깥에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팀원 모두는 감정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소설을 덮은 이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독자로서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파편적 기억, 연대와 치유,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예도 (2)

- 2026. 05. 11. 『작별하지 않는다』 독후 활동 -

I. 치유는 혼자 완성되는가, 함께 완성되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국가 폭력이 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파괴된 생애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묻는 소설이다. 인선은 4:3의 트라우마를 물리칠 수 없고 평생 모두 무너진 상태로 등장한다. 경하는 그런 인선에게 응답하기 위해 눈보라 속 채우도 원한다. 소설은 이 응답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소설의 제1차원은 치유를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다. 인선의 상처는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산물이고, 그 폭력은 피해자들을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었다. 개인의 상처가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유 역시 개인의 내면에서만 회복될 수 없다. 사회적 인정과 공동체의 애도가 치유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이 그리는 경하와 인선의 연대는 사회 유대관계, 사회적 예도의 실천인가, 그리고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생애가 치유되어야 할 무엇이 있는가.

II. 치유와 연대의 조건

i. 경하의 응답 - 타자의 얼굴

소설의 장치

경하는 인선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에 응답해 눈보라 속 채우도 말한다. 이 선택은 할 리의 개인의 결과야 아니다. 경하는 인선의 고통 앞에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각에 이끌린다. 소설은 이 응답의 행위를 처음으로 사회적 행위로 그린다. 경하가 인선의 고통에 머무는 것, 애를 함께 물리치는 것, 끝까지 자식을 지키는 것 모두 응답의 연속이다.

에타나벨 레비나스 - 타자의 얼굴

레비나스는 윤리의 출발점을 타자의 얼굴에서 찾았다. 타자의 얼굴은 단순한 물리적 얼굴이 아니다. 나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윤리적 호소다. 그 호소 앞에서 나는 회피할 수 없다. 레비나스에게 이 윤리의 의무가 모든 윤리의 근간이 된다. 타자의 고통을 응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인선 존재의 근원적 조건이다. 나아가 레비나스는 이 윤리가 자원을 배분한다고 본다. 타자를 위해 응답하는 순간, 나는 내 자원의 양분을 응시해 온 자에게서 떼어내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

경하가 눈보라 속에서 인선에게 향하는 행위는 레비나스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선포된다. 경하는 인선의 고통이라는 윤리적 호소에 응답한다. 이 응답은 경하 자신의 삶을 위협해 배트트하면서도, 필수적 요소는 경하에게, 자아 응시할 집사들을 넘어선 연대의 행위다. 그렇

다면 질문이 하나 남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II. 트라우마가 공동체를 갖는 데 과정 - 문화적 트라우마

소설의 장치

소설은 4:3을 인선 가족의 사적 참사로만 그려지 않는다. 인선의 어머니가 겪은 일, 인선이 물리받은 침묵, 경하가 그 침묵을 통해 알게 되는 역사는 점차 독자에게도 전이된다. 소설은 독자를 트라우마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4:3을 공동체의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소설 안에서 개인의 상처가 서사를 통해 사회적 사건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프리 알렉산더 - 문화적 트라우마

알렉산더는 트라우마가 단순히 사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 공동체 전체로 트라우마는 인정받아야만, 그 고통이 집합적으로 서술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알렉산더는 "트라우마 과정"이라고 부른다. 피해자의 고통이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으로 변질될 때, 비로소 그 사건은 사회적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고통이 사회적 연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개인의 병이나 열등함으로 환원된다.

4:3은 수십 년간 알렉산더가 말한 트라우마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국가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동체적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 거부로 트라우마를 개인의 짐속 속에 가렸다. 소설이 독자를 호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즉 "트라우마 과정"을 통해, 고통이 집합적으로 응시될 수 있는 시도를 일컫는다. 그렇지만 소설이 수행하는 이 과정은 실질적인 사회적 치유로 이어질 수 있는가.

III. 인정받지 못한 고통 - 인정 투쟁

소설의 장치

소설 속 인선의 어머니는 4:3의 생존자이지만 평생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은 존재했지만 사회적 연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선은 그 침묵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하가 그 고통을 응시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고통을 인정하려는 행위의 연속이다. 소설은 이 인정의 행위를 치유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야코브 호네트 - 인정 투쟁

호네트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존엄이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인정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① 사랑의 인정: 친밀한 관계에서의 돌봄. ② 법적 인정: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인정. ③ 문화적 인정: 공동체 안에서 자아 실현의 인정. 인정은 이 세 차원을 중화하여 비로소 회복될 때, 인간은 자아를 존엄하고 존중을 잃는다. 호네트는 이 인정을 박탈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회적 투쟁의 핵심 동력이라고 본다.

4:3 피해자들은 호네트가 말한 세 차원의 인정을 모두 박탈당했다. 사랑의 인정은 가족의 죽음과 결연된 침묵으로 인해 박탈당했고, 법적 인정은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대

적 인정은 "행위"라는 낙인 속으로 박탈되었다. 소설이 인선의 고통에 경하가 응답하고, 독자가 4:3의 증인이 되는 구조는 이 박탈된 인정을 서사적으로 회복하려는 실천이다. 그러나 서사 안에서만 인정의 실제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III. 치유는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된다

레비나스의 응답 윤리는 경하가 왜 인선에게 말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타자의 얼굴이 그리는 윤리적 호소는 회복할 수 없으며, 이 응답이 연대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윤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예도다.

알렉산더의 문화적 트라우마는 이 응답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조건을 설명한다.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의 트라우마로 인정받을 때, 치유는 사적 영역을 넘어선다. 소설이 독자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서사 전략은 이 사회적 인정의 과정을 문학 안에서 수행한다.

호네트의 인정 투쟁은 이 치유가 왜 단순한 감정적 위로로 끝날 수 없는지를 밝힌다. 박탈된 인정은 사랑, 법, 연대 세 차원 모두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소설이 서사적으로 수행하는 인정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치유가 완성되려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인정이 필요하다.

IV. 핵심 논제

논제 1.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응답은 어떻게 사회적 연대가 되는가.

경하와 인선의 관계는 두 개인 사이의 사적 유대관계로 보인다. 레비나스의 응답 윤리는 이 유대의 윤리적 근거를 설명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경로는 불명확하다. 개인의 응답이 집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개인의 차원설 제하는가.

논제 2. 윤리가 수행하는 트라우마 인정을 사회적 치유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알렉산더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공동체적 것이 되려면 사회적 서술과 공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소설은 독자를 4:3의 증인으로 끌어들여 이 과정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소설 속 인정이 실제 사회,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치유에 실패한가 아니면 더 나은 자서적 위안에 그치는가.

논제 3. 국가 폭력으로 파괴된 생애가 치유되어야 할 무엇이 필요한가.

호네트의 세 차원의 인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치유가 완성되지 않는다. 4:3 피해자들에게 박탈된 인정에 어떤 부당한 인정은 무엇인가. 소설이 제시하는 치유의 가능성은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 소설이 담지 못하는 치유의 조건은 무엇인가.

[단체 사진]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5. 18. (월). 18:00-20:00			장소	****학과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교코와 교지			저자	한정현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연도	2023. 09. 22.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경계 위의 언어 - 경계인의 위치성과 대안 공동체 (1) : 배제된 이들은 어떻게 역사를 말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교코와 교지』는 한국 퀴어 역사를 연구하며, 5.18, 부마민주항쟁, 삼풍백화점 붕괴, 용산참사 등 국가 폭력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교코와 교지, 광주 출신이지만 기니아를 거쳐 귀국한 이주 여성 경자,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몸에 새긴 무이 등 단일한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을 하나의 서사 안에 교차시키는 소설이다. 우리는 이 인물들이 주류 역사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있으며, 그 배제된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말하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각자 소설을 읽고 독후 소감문을 작성해 온 뒤, 소감을 발표하고 발제문을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p> <p>2. 독후 소감 나누기</p> <p>한*민 : 작품이 던지는 문제들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오래 남았다. 서로 다른 폭력을 연결하는 것이 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각 경험의 특수성을 흐리게 만들 위험도 있다는 점이 계속 고민되었다. 또한 퀴어 공동체나 경계 지대의 연대가 제도 밖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도 남았다. 작품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 소설이 단순한 역사 소설이나 정체성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느꼈다.</p> <p>책을 읽고 난 뒤에는 “누가 기억되고, 누가 지워지는가”라는 문제가 오래 남았다. 사회는 종종 다수자의 시선으로만 역사를 기록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이 소설은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지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p>						

고*연 :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설은 1980년대의 폭력과 차별, 그리고 식민지의 기억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보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 이 소설은 거대한 사건보다 개인들의 감정과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다. 인물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상처를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사회와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려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이를 통해 연대란 완전히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와 상처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은 '기억하는 일의 의미'였다. 직접 겪지 않은 역사라도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기억해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다. 동시에 타인의 기억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조심스럽지 않으면 그 고통을 함부로 소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느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쉽게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잊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원 : 『교코와 교지』는 읽는 내내 내가 얼마나 단일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해왔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이었다. 앞서 읽은 책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뤘다면, 이 소설은 그 사건들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에 놓는다. 광주항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 기니아를 건넌 경자, 5.18의 역사를 연구하지만, 그 안에서 쿼어의 자리를 찾는 교코와 교지. 이 인물들의 위치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은, 내가 역사 서사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소설에서 가장 오래 머문 장면은 영소가 경자에게 "엄마는 왜 경자가 되었어?"라고 묻는 장면이었다. 경자가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이름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 장면을 읽으며 내 삶도 그런 질문 앞에서 얼마나 말문이 막혀버릴지를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소설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으려 한다는 인상도 받았다. 광주, 베트남, 기니아, 쿼어, 재일조선인 차별까지. 각각의 역사가 충분히 숨 쉴 공간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무게를 밀어내며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읽는 내내 물음이 남았다. 그 물음이 불편하면서도 이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진 : 이 소설이 다루는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 같은 폭력의 역사들은 엄청 유명하지 않거나,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책을 읽는 내내 이 소설은 세상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비극들을 결코 이대로 묻어두거나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처럼 다가왔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와 소외된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채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으며 과연 상처의 '완벽한 치유'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국가나 사회적 폭력을 겪고 삶이 파괴된 이들에게, 상처가 아예 없던 일처럼 깨끗하게 사라지는 치유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설 속 인물들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척하는 거창한 지식 대신 자신의 아픈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법적 승인이나 제도가 없더라도 서로의 고통을 알아채며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다. 거창한 이념이 없어도 소외당해 본 사람들끼리 느끼는 '고통의 유대감'과 아주 사적인 응답들이 모여 단단한 관계망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상처를 평생 안고서라도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대와 맥락이 엄연히 다른 폭력들을 하나의 서사로 묶다 보니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조금 흐릿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겪지 않은 역사라 할지라도 이를 연구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타자의 기억을 마음대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세대를 넘어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진정한 연대의 형식이 된다.

결국 문학이 주는 감정적 위로나 글을 읽고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서사적 위안에 그칠 수 있다. 마음의 위로를 넘어 이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노력과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만 실질적인 치유 조건이 완성될 것이다. 비록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 책처럼 소외되었던 역사를 우리의 기억 속에 단단히 붙잡아두고 더 널리 알리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작품이다.

정*재 : 『교코와 교지』를 읽으며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은 것은 포스트메모리라는 개념이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연대인가 전유인가라는 질문은 소설을 덮은 뒤에도 쉽게 떠나지 않았다.

교코와 교지는 역사 속 현장을 직접 찾아다닌다. 이들은 그 역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직접 겪지 않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연대인지, 아니면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감수성으로 소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면서 그 경계가 어디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기억을 추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와 사건 앞에 직접 서는 것,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맥락과 구체성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그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이 소설 속 인물들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소설을 읽는 나 역시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소설을 읽으며 그 역사에 공감하는 것이 연대인지 전유인지는 결국 내가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포스트메모리는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태도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4. 발제문 공유

① 논제 1. 소설은 1980년대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하며, 그 연결이 설득력을 갖는가.

- 소설은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폭력을 하나의 서사 안에 배치한다. 이 배치는 역사적 폭력들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성격의 폭력을 동일시함으로써 각각의 특수성을 희석시키는가. 소설이 연결하는 방식에서 설득력 있는 부분과 의문이 드는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한*민 :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폭력을 하나의 서사 안에 배치함으로써 폭력이 작동하는 공통된 구조를 드러낸다. 작품 속 폭력들은 시대와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정상성”을 기준으로 타자를 배제하고 침묵시키려는 권력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광주항쟁에서는 국가 권력이 시민을 제거 가능한 존재로 규정했고, 재일조선인 차별에서는 민족적 타자화가, 성소수자 혐오에서는 성 규범을 벗어난 존재에 대한 배제가 반복된다. 이러한 연결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작품이 단순히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인물들의 삶과 감정 속에서 역사적 억압이 반복되는 경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코와 교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거나 숨겨야 하는 장면들은 광주 생존자들이 침묵을 강요받았던 경험과 감정적으로 맞닿는다. 폭력은 단지 물리적 억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존재한다. 광주항쟁은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며, 재일조선인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문화적 차별 구조라는 점에서 폭력의 성격과 규모가 서로 다르다. 이를 하나의 서사 안에서 연결할 때, 각 사건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과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은 같다”는 식의 단순화로 읽힐 위험이 있다.

소설의 의의는 서로 다른 폭력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데 있기보다, 사회가 특정 존재들을 반복적으로 주변화해온 방식을 드러내는 데 있다. 작품은 과거의 폭력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혐오와 차별 속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연 : 소설은 1980년대와 현재를 단절된 시각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기억으로 연결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영향을 받는다. 이 소설은 과거의 억압이 현재의 사회 구조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1980년대에 존재했던 배제와 침묵, 폭력의 방식이 형태만 달라지고 오늘날까지도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쿄코와 교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상처와 기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 폭력이 시간이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안에 남아 지속된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이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하나의 서사 안에 배치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이 높은 지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설득력 있는 부분은 연결의 '방법'에 있다. 소설은 이 역사들을 추상적으로 나란히 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들의 몸과 기억을 통해 연결한다. 아란이 아버지에게 처음 '해피투게더'를 보여줬던 장면에서 아버지가 마산의 경찰 진압을 떠올리고, 1년 뒤 광주에서 비슷한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다. 무이의 베트남 기억과 한국의 역사적 폭력 사이의 연결도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마산의 식당이라는 물리적 공간,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구체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설은 역사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인물들의 삶을 매개로 드러내기 때문에 단순한 동일시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소설이 다루는 각 역사는 폭력의 작동 구조는 비슷하나, 그 폭력의 성격과 역사적 맥락은 상당히 다르다.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각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식이 되려면, 그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설이 그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 : 소설이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라는 서로 다른 폭력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것은, 시대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국가나 거대 권력이 소수자에게 가한 '구조적 폭력의 유사성'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본다. 각 사건의 특수성을 희석하기보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던 아픔들을 수면 위로 함께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나 사건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폭력들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서사로 무리하게 묶는 과정에서 각 사건이 가진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독자에게 조금 흐릿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외된 비극들을 연결해 잊히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연결 방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물론 당사자의 위치에 서 있다 보면 그 바깥의 다른 맥락을 보지 못하는 한계나 또 다른 편향이라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세상에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와 편향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 자체가 소외된 역사를 더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본다.

정*채 : 소설의 연결은 설득력 있는 부분과 의문이 드는 부분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 폭력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지만, 그 구조는 공통적이다. 국가 혹은 사회가 특정 존재를 배제하고 침묵시키며 그 고통을 공식 역사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폭력들은 연결될 수 있다.

쿄코와 교지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과거의 폭력이 현재와 단절된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배제된 존재들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 반복되며, 그 반복을 직시하는 것이 현재의 폭력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소설은 이 연결을 통해 역사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시 읽게 만든다. 그러나 이 연결이 온전히 설득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폭력들을 하나의 서사 안에 배치할 때, 각

역사의 구체성이 지워지고 추상적인 보편의 고통으로 희석될 위험이 있다. 광주항쟁의 폭력과 성소수자 혐오는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그 발생 맥락과 피해의 성격은 다르다. 이 차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연결만 강조할 경우, 소설의 연결은 연대가 아니라 각 역사의 특수성을 소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② 논제 2. 소설의 수행적 저항은 공동체 없이 가능한가.

- 교코와 교지를 비롯한 인물들은 젠더 규범과 가족 제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이 선택들은 수행적 저항으로 읽힌다. 그러나 수행적 저항이 지속되려면 그것을 지탱하는 관계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이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방식은 어떠한가. 개인의 저항과 공동체의 조건 중 무엇이 선행하는가.

한*민 : 개인의 저항과 공동체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선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은 먼저 규범에 균열을 내는 선택을 통해 저항을 시작하지만, 그 저항은 관계망 속에서 지지받을 때 지속 가능해진다. 반대로 공동체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저항이 서로 연결되면서 형성된다. 소설은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적으로 보기보다, 서로를 만들어내는 순환적 관계로 제시한다.

고*연 : 소설의 수행적 저항이 반드시 공동체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항의 출발은 개인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차별과 억압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억하려 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작은 저항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김*원 : 수행적 저항은 공동체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소설은 저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생겨나는 장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저항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시각에 의문이 들었다.

버틀러의 논의에서 수행적 저항은 규범의 반복을 흔드는 행위다. 이 흔들림은 반드시 공동체의 승인이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호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자신의 젠더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관계망이 갖추어진 이후가 아니다. '아들 노릇'을 요구하는 가족의 압박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선택,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수행적 저항이다. 이때 수호 곁에 공동체가 있었다면 저항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저항했기 때문에 비로소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셀프 결혼식에 함께하는 선택, 애인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선택은 그것을 지지해 줄 공동체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나 스스로가 먼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저항이 공동체를 요청하는 것이지, 공동체가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공동체가 저항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조건과 가능성의 조건은 다르다. 공동체 없이도 저항은 시작될 수 있고, 그 저항의 시작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 소설이 그리는 인물들의 관계망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저항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행적 저항은 공동체의 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출발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진 : 젠더 규범이나 가족 제도에 맞서는 개인의 선택과 저항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하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결국 자신을 지탱해 줄 관계망과 공동체의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소설 속 인물들도 거창한 단체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과 아픔을 알아보고 곁을 지켜주는 아주 사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조금씩 관계망을 넓혀간다.

결국 개인의 저항 정신이 있더라도 혼자서는 금방 지치고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줄 최소한의 공동체적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억압에 맞서는 수행적 저항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정*채 : 수행적 저항이 공동체 없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단순히 답하기는 어렵다. 소설 속 인물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젠더 규범과 가족 제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각각의 행위들이 쌓이면

서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되는 관계망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선택이 선행되면 그 선택들이 모여 공동체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실에서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버틀러가 말하듯 수행적 저항은 규범의 반복을 흔드는 행위이지만, 그 흔들림을 감당하려면 최소한의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공동체 없이 홀로 선 개인의 저항은 극도로 취약하다. 소설 속 인물들이 저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서로를 향한 응답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관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규범을 거스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 저항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개인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지속 가능한 저항으로 이어지려면 응답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고립된 개인의 수행적 저항에는 한계가 있다.

③ 논제 3. 포스트메모리는 연대인가, 전유인가.

- 영소의 질문과 교코와 교지의 역사 연구는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포스트메모리적 실천이다. 이 실천은 고통의 기억을 세대와 공동체를 넘어 살아있게 하는 연대의 형식인가, 아니면 타자의 기억을 자신의 감수성으로 점유하는 행위인가. 그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가.

한*민 : 연대와 전유의 경계는 기억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기억을 자신의 경험처럼 완전히 소유하려 할 때 그것은 전유가 되지만, 끝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리감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질문하고 들으려 할 때 그것은 연대가 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과거를 완전히 재현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잊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이 점에서 소설은 포스트메모리를 단순한 감정적 동일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 책임 있게 머무르려는 윤리적 실천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고*연 : 전유보다는 연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역사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이어 피해자들의 기억이 잊히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 속 인물들 역시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하며, 그 기억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가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함께 짊어지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김*원 : 연대와 전유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존재할 위험을 안고 있는 긴장 관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 그 경계를 어떻게 의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영소가 어머니 경자에게 "엄마는 왜 경자가 되었어?"라고 묻는 장면은 포스트메모리의 가장 순수한 형태처럼 보였다. 경자가 말하지 못한 자리를 질문으로 채우는 것, 그 침묵에 응답하려는 시도 자체는 연대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교코와 교지의 역사 연구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이들은 광주와 부마민주항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으로서, 귀여 역사라는 자신의 관심을 통해 그 역사에 접근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연대이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의 기억을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편집하거나 재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허쉬의 논의처럼 포스트메모리가 불가피하게 상상과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전유의 위험은 포스트메모리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다. 이 위험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경계는 어디서 그어지는가. 나는 그것이 '자신이 누구의 고통을 가져다 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 속에서 교코가 "현실을 설명하기엔 확실치 않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 그 태도의 예시일 수 있다. 전유인지 연대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포스트메모리적 실천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 :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연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은, 타자의 기억을 내 감수성으로 마음대로 점유하는 '전유'가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세대 넘여까지 살아있게 하는 '진정한 연대의 형식'에 가깝다. 이 사건들은 안타깝게도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적은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직접 겪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고 만다.

연대와 전유의 경계는 '타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포용하고 더 널리 알리려는 진정성이 있는가'에서 그어진다고 본다. 단순히 내 지식을 뽐내거나 감상에 젖는 게 아니라, 희미해져 가는 비극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작별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필요한 문학적 연대이다.

정*채 : 포스트메모리는 연대인 동시에 전유가 될 수 있다.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그 경계가 어디에서 그 어지는가가 핵심 질문이다. 연대로서의 포스트메모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전 세대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실천이다. 직접 경험한 세대가 말하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질문으로 메울 때 그 기억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나 포스트메모리는 전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감수성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자칫 그 고통의 구체적 맥락을 지우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각 역사의 특수성이 보편적 고통의 언어로 희석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타자의 기억에 공감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포스트메모리가 연대로 남으려면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감수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맥락과 구체성을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코와 교지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그 태도의 실천에 가깝다. 기억을 추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와 사건 앞에 직접 서는 것이 전유와 연대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5. 사회학적 분석

킬벌리 크렌쇼 - 교차성

킬벌리 크렌쇼는 1989년 교차성 개념을 통해 단일한 억압 범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합적 차별의 구조를 설명했다. 인종과 젠더를 분리하여 분석하면 각각의 범주에서 특권을 가진 이들의 경험이 대표 서사로 자리 잡으며, 교차 지점에 놓인 이들의 경험은 지워진다. 소설 속 경자는 국가 폭력의 기억을 가진 광주 출신 여성이면서 이주민이고, 귀국 후 한국 사회에서 다시 낯선 존재가 된다. 이 중첩된 위치는 어느 하나의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다. 광주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고통, 이주 여성으로서의 소외, 한국어와 경험 사이의 간극은 각각이 아니라 동시에 경자의 삶을 구성한다. 크렌쇼의 교차성 개념은 이처럼 소설의 인물 배치 자체를 읽는 언어가 된다.

그러나 소설이 이 교차하는 경험을 서사화할 때, 그 서사화 자체가 또 다른 단순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교차성을 보여주는 것과 교차성을 살아내는 것 사이의 거리를 소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디스 버틀러 - 수행적 젠더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수행임을 주장했다. 젠더는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행 자체가 젠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규범적 젠더 수행은 권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 반복이 흔들리는 지점에서 저항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소설 속 인물들이 가족 제도와 젠더 규범 앞에서 보이는 선택들은 버틀러가 말한 규범의 반복을 흔드는 수행적 저항으로 독해된다.

그러나 버틀러의 이론을 논의하며 수행적 저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탱하는 공동체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들이 젠더 규범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떤 관계망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 없이 홀로 선 개인의 수행적 저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저항의 조건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있다는 점에서, 버틀러의 이론을 공동체의 문제와 엮어 토론을 이어갔다.

마리안 허쉬 - 포스트메모리 / 다니엘 레비·나탄 슈나이더 - 코스모폴리탄 기억

마리안 허쉬는 포스트메모리 개념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전 세대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자신의 것처럼

럼 내면화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포스트메모리를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이미지와 서사가 상상력과 감정적 연결을 통해 채워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후속 세대는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과 창조를 통해 그 기억을 메워 놓으며, 이 과정이 기억을 살아있게 한다.

레비와 슈나이더는 이를 코스모폴리탄 기억으로 확장한다. 특정 민족이나 국민 공동체에 귀속되지 않는 기억이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공감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이 광주, 베트남, 기니아의 역사를 하나의 서사 안에 놓는 방식은 코스모폴리탄 기억의 형식에 가깝다. 각각의 역사가 민족적 경계 안에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참조하며 연결되는 것이, 기억이 세대와 공동체를 넘어 살아있게 되는 조건인 것이다.

소결 : 배제된 위치는 어떻게 말하기의 조건이 되는가

토론을 마무리하며, 세 이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했다. 크렌쇼의 교차성을 소설 속 인물들이 왜 단일한 범주로 설명될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 경자, 교코, 교지, 무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류 역사 서사의 바깥에 놓이는 것은 이들이 동시에 복수의 억압 축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의 수행적 젠더는 그 위치에서 이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설명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역사가 몸과 상상력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세 이론을 겹쳐 놓으면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배제된 위치는 단순히 주변화된 자리인가, 아니면 주류 서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식론적 자리인가. 소설은 이 인물들을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하지 않는다. 그 배제된 위치에서 역사를 말하고, 기억을 잇고, 관계를 구성하는 인물들을 통해, 소설은 경계 밖의 삶이 어떻게 단일한 말하기 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활동 결과

소설이 광주항쟁, 재일조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하나의 서사 안에 교차시키는 방식을 놓고,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내는 연결인지 아니면 각각의 특수성을 희석시키는 동일시인지에 대해 팀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수행적 저항이 공동체의 선행 조건인지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인지를 두고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저항이 먼저 있었기에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시각과 최소한의 관계망 없이는 저항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맞섰다.

포스트메모리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연대와 전유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데 팀원 모두가 공감했으며, 그 경계가 결국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배제된 위치가 단순히 주변화된 자리가 아니라, 주류 서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식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유하며 7회차 활동을 마쳤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서인					
일시/장소	일시	2026. 05. 26. (화). 18:00-20:00			장소	****학과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민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고*연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김*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이*진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채
	참석인원(명)	5/5		참가자 대표	한*민 (서명)	
도서	도서명	쿄코와 교지			저자	한정현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연도	2023. 09. 22.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경계 위의 언어 - 경계인의 위치성과 대안 공동체 (2) : 경계를 넘어서는 것, 경계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활동 내용 & 방법						
<p>1. 활동 방법</p> <p>7회차에서 소설을 교차하는 소설이 교차하는 억압 구조를 어떻게 서사화하는지, 세대를 넘는 기억의 전달이 어떤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8회차에서는 그 논의를 공동체의 차원으로 심화했다. 주류 서사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자원으로 삼는지, 이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제된 이들 사이의 연대가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한지를 중심 질문으로 삼았다.</p> <p>발제문을 사전에 공유하고 각자 핵심 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와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8회차이자 이번 북클럽의 마지막 회차인 만큼, 토론 후 네 권의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기억의 정치학, 국가 폭력과 개인의 삶, 사회적 애도, 연대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p> <p>2. 발제문 공유</p> <p>① 논제 1. 위치적 지식은 더 정직한 앎인가, 아니면 또 다른 편향인가.</p> <p>- 해러웨이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시선이 더 정직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쿄코와 교지는 퀴어 역사의 당사자이면서 그 역사를 연구한다. 그러나 위치적 지식은 동시에 그 위치 바깥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당사자 연구자의 위치성은 지식의 강점인가, 한계인가. 위치적 지식이 갖는 설득력과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은 각각 무엇인가.</p> <p>한*민 : 인물들은 자신이 퀴어 당사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경험이 역사 연구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p>						

객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립적 시선”이 사실은 특정 권력의 위치였음을 폭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적 지식의 설득력은 완전한 보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타인의 경험에 계속 귀 기울이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고*연 : 나는 위치적 지식이 더 정직한 앎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감정과 현실, 그리고 피해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코와 교지』 속 인물들처럼 역사적 폭력과 차별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은 실제 삶에서 비롯된 진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위치적 지식은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가해자의 입장까지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가해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역시 자신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위치적 지식은 가장 현실에 가까운 진실을 담고 있지만, 개인의 경험과 위치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편향된 정직함’이라고 생각한다.

김*원 : 교코와 교지가 당사자로서 귀어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역사의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위치적 지식은 중립을 가장하는 '어디서나 보는 시선'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러웨이 자신도 인정하듯, 위치에서 비롯된 지식은 동시에 그 위치 바깥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교코와 교지의 연구가 귀어 공동체 내부의 위계나 차이를 충분히 담아내는지, 혹은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것만을 선별적으로 포착하지는 않는지는 물어야 한다. 위치적 지식의 강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계를 모른 척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편향이 된다.

이*진 : 자신이 귀어 역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교코와 교지의 위치성은 지식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객관적인 척하는 거창한 지식보다, 내가 어디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시선이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의 진실을 바라보는 데 훨씬 더 정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의 위치에 서 있다 보면 그 바깥의 다른 맥락을 보지 못하는 한계나 또 다른 편향이라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세상에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와 편향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 자체가 소외된 역사를 더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본다.

정*재 : 위치적 지식은 강점인 동시에 한계이다. 강점으로서의 위치적 지식은 객관주의가 놓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등장인물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학문적 중립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러웨이가 말하듯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선은 사실 어디서도 책임지지 않는 시선이다. 반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시선은 그 위치의 제한을 통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의 연구자와 위치성은 주류 역사 서사가 배제해 온 것들을 가시화하는 인식론적 자원이 된다.

그러나 위치적 지식은 동시에 그 바깥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당사자의 시선은 특정한 경험을 깊게 볼 수 있지만, 그 경험 바깥의 맥락을 놓칠 위험이 있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된 역사에 집중하는 것은 그 역사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고통을 주변화할 수 있다. 소설이 불완전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치적 지식의 가치는 완전한 앎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위치의 한계를 숨기지 않는 태도가 위치적 지식을 정직한 앎으로 만든다. 강점과 한계는 동전의 양면이다.

② 논제 2.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에는 최소한의 공통 기반이 필요한가.

- 영과 무폐는 차이를 해소하지 않는 연대를 주장하지만, 그 연대가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공통 기반이 필요하다. 소설 속 인물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통의 기반을 설정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기반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배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한*민 : 작품은 공통 기반을 단일한 정체성이나 이념으로 고정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 자체에서 찾으려 한다. 인물들은 완전히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며, 서로를 끝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계속 질문하고 기억하려 한다는 점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소설이 보여주는 연대는 완전한 합의나 동일성에 기반한 공동체라기보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불안정한 연대라고 볼 수 있다.

고*연 :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에도 최소한의 공통 기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쿄코와 쿄지』 속 인물들도 서로의 삶과 배경은 다르지만, 차별과 폭력 속에서 배제되었다는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공통 기반을 설정하는 과정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연대를 만들 것인지는 결국 더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대를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연대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존재하려는 태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 속 인물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할 때, 그것이 동일한 고통이나 동일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소설을 읽으며 내가 찾은 잠정적인 답은 '떠나왔지만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감각'이었다.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경험, 그것이 이 인물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공통 기반도 누군가에 의해 설정되는 순간 또 다른 배제를 만들 수 있다. '우리'를 규정하는 언어는 언제나 그 언어 바깥의 누군가를 밀어낸다. 공통 기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상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진 : 소설 속 인물들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아 본 사람들끼리 느끼는 '고통의 유대감'이다. 굳이 거창한 이념이나 조건이 없더라도,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곁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된다.

이 기반을 설정하는 권력은 어떤 대단한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는 개인들에게 있다. 만약 이 기반을 국가나 제도처럼 권위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묶으려 했다면 또 다른 배제를 낳았겠지만, 인물들 사이의 공통 기반은 그저 서로의 상처에 응답하는 사적인 공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

정*채 :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에는 최소한의 공통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반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배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류 서사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공통의 위치 때문이다. 이 공통의 위치가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 억압받는 집단들은 자신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 기반을 설정하는 순간 누가 그 기반을 설정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배제된 존재라는 공통점을 연대의 근거로 삼을 때,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다시 배제된다. 연대의 경계를 긋는 행위는 언제나 그 경계 바깥을 만들어낸다. 공통 기반을 설정하는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때, 그 연대는 또 다른 위계를 내부에 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가 새로운 배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공통 기반을 한 번 설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밀어내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연대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는 과정이다.

③ 논제 3. 경계 지대의 공동체는 제도 바깥에서 충분한가.

- 안살두아의 경계 지대 공동체는 제도가 만들어주지 않은 연대의 형식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망도 법적 승인 없이, 때로는 제도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만들어진다. 이 공동체는 구조적 억압에 맞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제도적 변화 없이 경계에서 만들어진 연대로 충분한가, 아니면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한*민 : 제도 밖의 공동체와 제도 변화 중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 둘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경계 지대의 연대는 지금 당장의 생존과 저항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시에 제도 안으로의 진입 역시 기존 질서에 흡수될 위험을 가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밖의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그 연대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고*연 : 경계 지대의 공동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동체만으로 구조적 억압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쿄코와 교지』에서의 공동체는 사회와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지지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경계 지대의 공동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와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지지하며, 배제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쿄코와 교지』 속 인물들 역시 제도 밖에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기억하려 하며 연대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만으로 구조적 억압 자체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과 폭력은 개인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연대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경계 지대의 공동체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회제도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 소설 속 인물들의 공동체는 법적 승인 없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그려진다. 그러나 소설을 덮고 현실로 돌아오면, 제도적 승인 없이 유지되는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호와 '나'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관계를 지켜주는 구조가 없다. 경계 지대의 공동체는 구조적 억압에 맞서는 첫 번째 거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것과 제도 바깥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 이 두 전략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진 : 법적 승인도 없고 제도적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이 경계 지대의 공동체가 구조적 억압에 맞서는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와 너라는 아주 사적인 유대와 작은 관계망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야 비로소 사회적 연대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적 변화 없이 경계에서의 연대만으로 완벽히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갈 수는 없기에, 결국은 실질적인 보상이나 법적 인정 같은 제도 안으로의 진입이 뒤따라야 치유와 해결이 완성된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힘 역시 이 경계 지대의 단단한 관계망에서 싹트는 것이므로, 개인들의 저항과 연대가 먼저 단단하게 버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채 : 경계 지대의 공동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천이지만, 구조적 억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법적 승인 없이 제도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관계망을 만들어간다. 이 공동체는 제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묶임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안살두아가 말하듯 경계에 선 이들은 주류 서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그 위치 자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 연대는 제도 바깥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제도 바깥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호와 나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비인정은 단순한 상징의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권리의 박탈이며,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박탈은 지속된다. 경계 지대의

공동체가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지더라도, 제도적 구조가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조건을 유지하는 한 연대는 고립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경계 지대의 연대는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제도 바깥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실천이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압력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구조적 억압에 실질적으로 맞설 수 있다. 경계에 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경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학적 분석

도나 해러웨이 - 위치적 지식

도나 해러웨이는 객관성이란 어디에도 없는 신의 시선이 아니라 항상 특정한 위치에서 생각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선은 사실 어디서도 책임지지 않는 시선이다. 반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시선은, 바로 그 위치의 제한을 통해 더 정확하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연구는 해러웨이가 말하는 위치적 지식의 실천이다. 이들이 학문적 객관성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연결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인식론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한 앎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비판적 의문이 생겼다. 위치적 지식이 불완전한 앎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해도, 그 불완전성이 모든 위치의 앎을 동등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위치마다 다른 앎의 조건이 있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위치를 하는 것이 더 정직한 인식의 조건이라는 해러웨이의 논의가, 위치에 따른 인식의 격차를 오히려 고착시킬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되었다.

아이리스 영 - 차이의 정치학 / 샬 무페 - 경쟁자

아이리스 마리온 영은 차이의 정치학을 통해 사회적 차이를 동일성으로 수렴시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탐색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주의는 사실상 지배적 집단의 기준을 보편으로 위장한다. 억압받는 집단들은 자신의 고유한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할 수 있다.

샬 무페는 이를 경쟁자 개념으로 보완한다. 무페에게 진정한 민주적 연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적대를 경쟁으로 전환할 때, 서로 다른 이들은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인정하게 된다.

소셜이 그리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영이 말한 차이의 정치학을 체현한다. 억압받는 이들이 자신의 차이를 지우고 단일한 주체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지점을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생겼다.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는 어느 수준의 차이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반은 무엇이며, 그 기반을 설정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갈등을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상호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전제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경쟁자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소결 : 연대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세 이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했다. 해러웨이의 위치적 지식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인식론적 자원으로 삼는 것이 더 정직한 앎의 조건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위치를 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위치의 한계도 안다는 것이다. 아이리스 영과 무페의 논의는 그 불완전한 위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차이를 지우지 않고 갈등을 경쟁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 이 연대의 원리다. 안살두아의 경계 지대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위치가 오히려 복수의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차이와 혼종성을 공동의 자원으로 삼는 대안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 이론의 공통된 통찰은 하나다. 연대는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를 유지하는 연대는 언제나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요구하며, 연대를 위한 공통 기반을 설정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

고 설명한다. 경계 지대의 공동체가 제도적 변화와 맞물리지 않으면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소설이 그리는 연대의 형상에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연대가 어떤 구조적 조건 위에서 가능한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발제문 논의를 마쳤다.

4. 전체 활동 정리

활동 개요

회차	도서명	핵심 주제
1-2 회차	『황태자비 납치사건』 (김진명 저)	승자의 기록과 피해자의 기억 - 기억의 정치학
3-4 회차	『소년이 온다』 (한강 저)	국가 폭력과 개인의 생애 - 구조적 폭력의 시간성
5-6 회차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저)	파편적 기억과 연대 -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애도
7-8 회차	『쿄코와 교지』 (한정현 저)	경계 위의 언어 - 경계인의 위치성과 대안 공동체

주제의 심화 흐름

이번 북클럽은 '역사적 비극의 사회학적 재구성'이라는 큰 틀 아래, 사건의 재조명에서 개인의 고통으로, 다시 경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심화 구조를 따라 진행되었다.

1-2회차에서는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통해 기억의 정치학을 탐구했다. 을미사변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은폐되고 공식화되는지를 분석하고, 문학이 대항 기억으로서 그 공식 서사에 저항하는 방식을 사회학적으로 논의했다. 대항 기억이 제도적 변화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더라도, 저항의 실천이 누적될 때 변화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3-4회차에서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그 폭력이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생애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탐구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구조적 공모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프로이트의 '애도와 멜랑콜리아'로 국가가 애도의 공간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생애 전체에 고착시키는지 살폈다. 구조적 폭력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인의 몸과 삶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구조의 증거로만 환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팀의 결론으로 도출했다.

5-6회차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치유의 문제를 다뤘다. 소설의 파편적 서술 구조가 4:3이라는 역사가 전달되어 온 방식 자체를 문학으로 재현한 것임을 분석하고, 레비나스·알렉산더·호네트의 이론을 통해 치유가 왜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없는지를 논의했다. 문학이 수행하는 연대적 인정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법적·제도적 차원의 인정이 소설 바깥에서 이어져야 치유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7-8회차에서는 『쿄코와 교지』로 논의를 경계의 문제로 확장했다. 주류 서사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자원으로 삼는지, 그들이 형성하는 대안 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했다. 해러웨이의 위치적 지식, 버틀러의 수행적 저항,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개념을 적용해 경계인의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탐구하고, 연대와 전유의 경계가 기억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회학적 통합 결론

이번 북클럽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역사적 비극이 과거의 사건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권의 텍스트는 각각 다른 사건과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공통적으로 묻는 것은 하나였다. 국가가 특정한 죽음과 고통을 공식 언어 바깥으로 밀어낼 때, 그 배제는 어떤 형태로 사회 안에 잔류하는가.

『황태자비 납치사건』에서 우리는 기억이 중립적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역사로 기록되는 것과 망각되는 것은 권력관계의 산물이며, 문학은 그 선별 과정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

설이 만들어내는 대항 기억 역시 특정한 시선과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복원 자체가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긴장도 함께 포착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거치며 논의는 역사의 구조에서 개인으로 내려왔다. 국가 폭력은 사건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피해자에게 애도 불가능성을 부과함으로써 그 폭력을 생애 전체에 걸쳐 연장한다. 이것이 구조적 폭력의 시간성이다. 치유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개인적 윤리에서 출발하지만, 법적·사회적 인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응답은 사적 위로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쿄코와 쿄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른 층위에서 제기한다. 배제된 이들이 맺는 연대는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변화된 존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응답하는 관계, 그것이 이 소설이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의 조건이다. 이 공동체는 제도적 승인 없이도 존재하지만, 구조적 억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그 연대가 제도 바깥에 고립된 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한계 역시 함께 논의했다.

사회학은 고통의 원인을 구조에서 찾는 동시에, 그 구조 분석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그 긴장을 이론의 언어로 다루는 훈련을 했다. 또한 우리는 이 텍스트들을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설 속 고통이 어떤 구조적 조건의 산물인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이 다시 소설 바깥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태도가 독자로서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결과

8회차 토론을 통해 우리는 『쿄코와 쿄지』가 제시하는 경계인의 연대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특정한 인식론적·구조적 조건 위에서만 가능한 실천임을 확인했다. 해러웨이의 위치적 지식, 아이리스 영의 차이의 정치학, 무페의 경쟁자 개념을 통해 불안정한 위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폈고, 연대와 전유의 경계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소유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려는 윤리적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동시에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경계 지대의 공동체는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경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8회차는 북클럽의 마지막 회차인 만큼, 토론 후에는 네 권의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기억의 정치학, 국가 폭력과 개인의 삶, 사회적 애도, 연대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이번 북클럽 전반을 통해 도달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역사적 비극은 과거의 사건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특정한 죽음과 고통을 공식 언어 바깥으로 밀어낼 때, 그 배제는 대항 기억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멜랑콜리아로, 파편화된 증언으로, 그리고 경계 위의 연대로 사회 안에 잔류한다. 우리는 그 잔류의 형태를 사회학적 언어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분석이 개인의 고통을 구조의 증거로만 환원하지 않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자료

[토론 발제문]

